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14일)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스님도 소중한 한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3월 4일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스님은 사전투표 후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잘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2월 28일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원행)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통합 주력" 일성

3월 9일 대통령 선거서 박빙 끝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 및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등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교계 관심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3월 10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개표결과 윤석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초박빙 경쟁 끝에 48.56%(1639만여 표) 득표율로, 47.83%(1614만여 표)를 득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양후보간 득표차는 24만표로 역대 최소치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성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부터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첫 일성을 밝혔다. 이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 이재명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 속에서 불심의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톨릭 편향과 전통문화 보존예산 삭감,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 등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전통문화 정책 개선을 비롯한 숙원과제 해결과 종교편향 개선안 등 불교계 민심을 염두에 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관련 공약을 통해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통문화 유지보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무속논란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지만, 불교계와 인연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기



전통문화 공약 현실화에 '주목'
불자는 아니나 불교 인연 많아
대학시절 중광 스님 만나 친분
나눔의집 문제 관련 소신발언

사찰에서 공부에 매진한 경험을 종종 밝혀 주목받았다. 1980년대 서울대 법대에 재학 당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5 · 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후 강원도로 피신했을 때 故 중광 스님과 인연을 맺은 에피소드도 회자된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당시 "20대 시절 중광 스님과 함께 낙산사와 신흥사, 백담사 등을 순례했다"며 "또한 어머니 등 외가가 신심깊은 불자라 어린 시절 강릉 외가에서 지내며 친척들과 사찰에 많이 다녔다"고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원행 스님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는 처염상정의 가르침을 내리며 "원칙과 중도를 지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경 통도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향식에 참석한 당시에도 "젊은 시절 중광 스님과 함께 낙산사와 신흥사, 백담사까지 많은 사찰을 순례했다"며 재차 인연을 강조한 데 이어 "힘들 때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부처님 생각하시는 법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 1월에는 불교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화쟁의 가르침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사를 인용해 "불이와 화쟁정신의 가르침은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 더욱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며 "이 같은 가르침을 새겨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세월 종교를 넘어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힘써주신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나눔의집 사태로 인한 논란 속에서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질타하는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나눔의집 설립주역인 대표이사 월주 스님의 갑작스런 원적 이후 영결식 조문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월주 큰스님의 입적에 영향을 미친 나눔의집 사태는 경기도의 인격 말살적 공격이라고 본다"고 작심발언했다. 이는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검 ·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강행한 데 대한 행정적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주목됐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불교계 관심은 공약의 현실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문화 보존 정책 및 종교편향 예방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통범주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입법안 상정 등을 통해 의지를 드러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현실화 노력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공약 실현 여부에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상월결사 '평화' 주제 교구본사 순례 진행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3월 23일 해남 대흥사 순례를 시작으로 '평화' 를 주제로 한 교구 순회 순례를 진행한다.

상월결사는 3월 10일 동국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23일 대흥사 평화발원 걷기순례, 4월 27일 월정사 생명평화 걷기순례, 5월 25일 백양사 평화발원 걷기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월정사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설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평화라는 주제로 순례를 진행하는 것은 2019년 천막결사에서 4대결사 발원으로 수행정진결사, 불교중흥결사, 대한민국화합결사, 세계평화결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발원 순례는 묵언 행선을 기본으로 해당 사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심공양을 비롯해 개인 물품 지참 하에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듯이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순례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상월결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과 세상의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하며, 순례를 통해 이 가르침을 서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3월 23일 대흥사 시작해
4월 월정사, 5월 백양사
4대 결사 발원 일환으로
묵언 행선으로 평화기원

3월 대흥사, 4월 월정사 평화순례 시 각각 실무를 맡은 설도, 설암 스님은 이번 순례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며 기대를 전했다.

대흥사 설도 스님은 "상월결사가 3년을 넘어 4년차에 들어서고 있다. 대흥사는 가장 빨리 봄이 찾아오는 곳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차별로 소외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평화순례를 처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흥사 구곡구교를 건너는 길은 '장춘길' 로 불린다. 대흥사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설암 스님은 "이번 상월결사는 단순하게 우리 불교 내부 행사, 걷기순례라는 지엽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평등과 자유사상을 화쟁으로 전환하고 사회에 평등자애사상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오대산 선재길은 선재동자 구법기를 바탕으로 옛길을 복원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 미얀마사태 등 세계의 분쟁이 중단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하반기에는 사찰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기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나눔의집 정식이사 선출…정상화 '기대'

3월 10일, 관내서 정기이사회 개최

일운·응묵·제민·성화·희유 스님
이사 6명 만장일치…4명 사퇴표명
혜일 스님 "속히 정상화 이뤄지길"
3월 30일 이사회 열어 후속 논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MBC PD수첩의 왜곡보도 후 혼란을 거듭해 온 나눔의집이 2년에 만에 정식 이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정식이사는 일운, 응묵, 제민, 성화, 희유 스님이다. 정식이사들의 활동으로 그간 산적한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 나눔의집의 정상화는 물론,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눔의집은 3월 10일 관내 교육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기도 행정처분 이행사항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사임 건 △이사 해임 건 △정식이사 선임 건 △2021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등 11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이사들 간의 의견차로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정기이사회에 앞서 경기도가 선임한 이사 중 3명이 정식 이사 선임안 상정을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신청한 의안상정 금치 가처분이 이사회 당일 오전 기각됐고, 이에 해당 안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려 했으나 이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수차례 거부하면서 대립각이 일었다.

게다가 정식이사 선임 건 논의 직전 이찬진 직무대행을 포함한 임시이사 4명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면서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6명의 이사만 참석한 채 회의가 속행됐다.

상임이사 직무대행인 혜일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식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판교노인복지관장 일운 스님, 前 금산사 복지원 이사 응묵 스님, 적석사 주지 제민 스님, 통도사 자비원 이사 성화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을 정식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혜일 스님은 "정식이사 선임으로 임시이사회는 이제 해체된다"며 "남아있는 정이사와 새로 선임된 정이사가 나눔의집을 원활하게 운영,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에게도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낸 만큼 속히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님들을 잘 모시길 바라며 이곳이 할머님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식이사 체제로 나눔의집 정상화에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나눔의집은 3월 30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소집, 2년간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눔의집 강정숙, 박숙경, 이총희 임시이사 등 3명은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나눔의집을 상대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신청 취지는 3월 10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정식이사 5인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것으로, 이들은 "법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종교적,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연고주의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3월 10일 오전, 가처분을 기각했고 이에 이사회는 원안대로 정식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정화 후에도 지속되는 선암사 분쟁 참담"

4대 주지 윤형하 씨, 조계종 공로패 수상

법적 소송 중인 선암사 관련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법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지적
前총무부장 금곡스님도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금곡 스님(위)과 윤형하 씨(아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로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암사 4대 주지였던 윤형하 씨가 "정화 60년이 지나도 선암사를 두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쟁에 아픔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재판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윤형하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선암사의 삼보정재를 보존하는 데 특별히 기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공로에 감사하는 취지다. 윤형하 씨는 정화 이후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선암사 4대 주지 소임을 맡아, 당시 선암사의 등기부상 명의를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완료한 당사자다.

이 자리에서 윤형하 씨는 "공로패를 받을 일도 아니"며 "다만 정화 이후 지금까지도 선암사와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밝혔다. 이어 "선암사는 우리민족의 전통유산이자 불법이 계승되는 도량"이라며 "삼보정재가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목적으로 보존관리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고 참담해 했다. 때문에 "선암사 재판은 반드시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법이 유효하다는 주장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족유산인 선암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원행 스님은 前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금곡 스님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여 년간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금곡 스님은 지난해 4월 선암사 주지로 임명돼, 태고종과 소유권 분쟁을 담당하는 한편 조계종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송지희 기자

자비 손길로 화마 휩쓴 상처 보듬는다

종정 진제 스님 필두로 릴레이성금

조계종복지재단, 현장 모니터링 후
생활가전 지원…긴급모금 시작도
아름다운동행 · 더프라미스도 모금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5000만원을 쾌척했다.

경북과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불 발생 직후인 3월 6일,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모금 캠페인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시작으로 릴레이 성금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교구본사 및 사찰들이 잇따라 구호기금 모연에 동참,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진제 스님은 3월 8일 "산불 화재 피해 주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5000만 원을 쾌척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큰절 주지를 맡으니 화재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종단차원에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터전을 잃은 주민들 지원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도 3월 11일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피해지원을 위한 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고 조계종총본산 조계사도 3월 15일,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3월 8일부터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시작했다. 02)737-9595

또 이번 산불로 인해 사찰에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전통사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3월 6일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하고 경북 · 강원지역 피해사항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피해가 큰 경북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세대에 전기밥솥과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을 지원한다. 모연으로 마련된 생활가전 200개는 관련 군청 및 담당자들과 현지 상황을 논의 후 주택 전소 세대를 선정, 이재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실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02)723-5101

지구촌공생회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생활터전 복구를 위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409-0303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산불 진압에 힘쓴 방재단 및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급식 지원에 나섰다. 더프라미스 산불긴급대응팀은 3월 7일 강원도 동해시 비천분교에 위치한 상황실을 방문, 300명에게 물과 도시락, 김밥 등 급식을 지원했다. 이어 동해시에 위치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방문, 대피해 있는 25세대 51명에게 티셔츠와 바지, 양말, 목욕 용품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키트를 전달했다. 3월 9일 더프라미스 재난구호 이사 묘장 스님이 직접 망상수련원에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02)735-3119

이 밖에도 강원도에 산불피해가 있을 때마다 긴급구호 부스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던 설악산 신흥사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호 기자

호명 스님, 한일불교교류協 이사장 취임

3월 4일 서면결의로 확정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이사장에 취임했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3월 4일 서면결의로 대체된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임기만료된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후임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이사장 취임이 공식확정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애초 2월 23일 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이유로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이어 3월 4일 총원 47명 중 불참(미회신) 1명을 제외한 성원으로 호명 스님 이사장 취임의 건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신임 이사장 호명 스님은 지난해 12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추천된 바 있다. 호명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또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연기도 결정했다. 협의회는 애초 6월 13일~15일 일정으로 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일한불교교류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개최 일정은 확산 추이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 대한불교조계종

NAVER Daum

www.buddhism.or.kr

▶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 후원계좌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 문의전화 02) 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전통문화 정책 개선 '기대'…차별금지법 · 탈핵은 '우려'

공약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특위 공약
전통사찰 보존 위한 변화 기대
불합리한 이중 규제 등 개선도
불교계 숙원과제 상당수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보 입장
10대 공약에 '원전 강국' 우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차기정부가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기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오랜 숙원과제였던 전통문화 정책 개선과 종교편향 근절방안, 차별금지법 제정 및 탈핵 · 기후위기 대안에 대한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공약 및 발언을 토대로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통해 불교 및 전통문화유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16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조계종 총무원, 관련 기관, 당 내 정책본부 등과 논의해 공약을 구성했다. 주요 골자는 전통사찰 보존 정책의 강화다. 전통사찰에 가해지는 이중규제를 검토해 실질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개선하고 정책 공백으로 과도하게 부여됐던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 운영상의 고충을 해소해 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해 기존 분리과세 체제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전통사찰 뿐 아니라 향교나 종중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전통문화유산의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은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항온항습 기능을 가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이 같은 공익성 목적이 현행법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일반용 요금체계에 준하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이를 사설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사업시 사찰의 자부담률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전통사찰이 전각 등을 보수할 때 통상 전체 예산 가운데 자부담률을 책정해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자부담률 책정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찰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사찰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부담률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작 등을 위한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물론, 중복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의 양성화, 전통사찰 경내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들은 전통사찰이 관련 법 제정 이전부터 유지돼 왔음에도 이후 생겨난 법체계와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내몰리거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고충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또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 본부의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이를 보다 효율적 · 종합적으로 보존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주목된다.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의 확대를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사찰림의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보호 ·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럼에도 전통사찰들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신행생활 측면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참회를 먼저 전했다.

이에 "불교는 특정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인 만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 · 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사업"이라고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종교평화위원회' 신설의지도 밝혔다.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교평화위원회 신설을 통해 종교편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전통문화 및 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종교편향 대안 마련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는 점에서, 오랜 불교계 고충의 상당수가 차기정부 체제에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탈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윤 당선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 당선자 역시 선거캠프 공식입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안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10대 공약의 하나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꼽으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원전 원천기술의 전세계 수출 추진을 약속해 탈핵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석탄 기반 중심인 산업체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 불교 공약은?



1. 전통사찰 보존
- 전통사찰 토지 재산세 · 종부세 감면
- 합산과세 방안 철회(향교 · 종중 포함)
- 문화재 보유사찰 전기요금 교육용 부과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시 자부담률 폐지
- 전통사찰 농지 직접 취득 가능
-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종교용지로 변경
-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방안 모색
- 불합리 · 중복규제 개선

2. 전통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본부 신설
- 연등회 전승관 건립
-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환지본처

3. 국립공원 제도 개선
-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 객관화
-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 정비
- 공원문화유산지구 확대 · 예산 증액
- 사찰림 효율적인 보호 · 보존

4. 종교편향 근절
-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 공무원 종교편향 처벌조항 강화
- 용산공원 복원시 종교형평성 고려

윤석열 당선인에 바란다

불교 지도자들, '화쟁 · 전통문화 보존' 당부

3월 10일 축하메시지 잇단 발표
원행 스님 "포용의 리더십" 강조


원행 스님


호명 스님


문덕 스님


도진 정사

불교계 지도자들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화쟁의 가르침을 통한 상생과 화합,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은 3월 10일 잇따라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축하와 차기정부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포용의 리더쉽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안정,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책과 화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세계속에 자랑스런 문화민족으로 자리하는 데 앞장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당선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항상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 온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수한 전통문화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국민 피로가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은 만큼, 국난극복과 국민 화합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성심을 다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무엇보다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도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달라"며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새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진 정사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국정운영과 정치체질 개선으로 헌정사에 빛날 파사현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화쟁 · 호국불교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뤄 달라"며 특히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 앞에 성찰하며 크게 소통하고 분별없이 어울리는 평화와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존의 의지는 중요한 책무이자 실천"이라며 "대통합을 위한 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E-mail** : ds7788@hanmaum.org
-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 **전화** 031)470-3276, 3277
-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군승 파송 절벽’ 임박, 종단 대응 시급하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대응 촉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만’ 정원 미달 ‘출가자 감소’
개신교 10:1, 가톨릭 4:1과 대조
군종교구, 종단 관심 · 대응 호소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가 대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군승으로 군법사의 독신비구 정체성을 강화한 지 10년, 군승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출가자 감소 여파로 군승 파송 절벽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 파송 인원 미달로 향후 국방부 종교정책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3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파송 미달 사태 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 국방부가 정한 신임 군종장교 정원을 보면 불교는 군승법사 정원 18명 중 8명을 확보, 정원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개신교의 경우 200여 명이 지원하여 10:1의 경쟁률로 군목 18명을 채운 것과, 가톨릭이 4:1의 경쟁률로 군신부 14명을 채운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선일 스님은 “출가자 감소와 군승제도 도입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종립학교에서 선발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라며 “종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승법사는 400여 군법당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핵심요소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에서 군승법사의 독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군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종립학교에서 ROTC처럼 일반인이 지원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급감했고, 스님들로 구성된 군승요원 선발로 사실상 선발이 단일화되어왔다.

이후 급격한 출가자 감소로 해당 연령대의 군승요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2021년 파송인원 미달 이후 군종특별교구는 선일 스님 취임을 기해 교구본사협의회 등에서 ‘군승 교구의무파송’ 등을 제안했지만 ‘사찰도 젊은 스님들이 없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문제는 이같은 군승법사 파송 미달 문제가 반복되면 국방 종교정책 상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불교계는 군종장교 파송에서 기독교계의 군종장교 대량 파송에 맞서 불교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포교 현장에서 각 종교의 군종장교 수가 곧 해당종교 포교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일 스님은 “군승 수급 문제가 계속되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군승 파송은 군종특별교구만의 문제가 아닌 종단적 문제로, 종단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군종특별교구는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승법사 파송 미달 문제는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 △민간인성직자 활동 활성화 △타종단 군종장교 파송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 중 민간인성직자 활동 활성화는 국방부 군종정책 외 요소로, 군종장교를 통한 군포교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타종단 군종장교 파송 문제는 파송주체가 조계종으로 단일화된 문제가 있다. 결국 출가자 감소로 군승요원 확보가 어려워진 지금, 종립학교 재가학생들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군승요원과 달리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독신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파송 후 관리에 있어 군승요원과 군종사관후보생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독신 예외조항이 있었던 시기 군종사관후보생은 평균 4: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 포교인력 유치의 창구가 됐다.

한 군포교 관계자는 “국방부 군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지원 예산을 군종장교 인건비 등을 통해 보면 1인당 연간 1억원이 넘는다. 국가 지원 속에 전법포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6월 15일 호국홍제사 법당 준공 및 군승교육 강화 등도 공개했다.

수원 봉녕사 율맥 전계식 및 입학식 봉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는 3월 10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6회 전계식과 승가대학 및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전계식을 통해 자운 스님과 묘엄 스님으로 내려온 율맥을 능윤 스님과 도연 스님, 유정 스님, 선정 스님에게 전했다. 그 증표로 가사, 〈계율학집성〉이 수여됐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전계는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간 율원에 상주하면서 수행이력을 갖춘 스님에게 주어진다. 이어 승가대학 및 금강율학대학원 입학식에서는 봉녕사승가대학에 선본 스님 등 7명,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법일 스님 등 7명, 연구과정에 수연 스님이 입학했다. 노덕현 기자



초기불교 어벤저스 총출동…대강좌 개막

참불선원, 3월 22일 초기불교대학 7기 개강

서울 강남 참불선원서 진행
매주 화 오후2시 강연 나서



K메디테이션, 한류명상을 이끄는 강남 도심 속 명상센터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이 3월 22일 초기불교 대강좌 문을 연다.

이번 대강연은 제7기 초기불교대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7월 12일까지 총 30강으로 구성된다.

참불선원 초기불교대학은 2018년 시작된 이후 그동안 600여 명이 졸업했다. 코로나 속에서도 6기 과정에는 160여 명이 등록해 수료할 만큼 호응이 높다.

이번 7기 강좌에서는 특별히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교수 스님과 수좌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 면면은 불교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화려하다.

‘불교원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대가’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 ‘태국 인터내셔널 불교대학 교수’를 지낸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스리랑카 승려로 한국마하위라센터’ 주지로 있는 불교학 박사 담마끼띠 스님, 한국 불교학 석학으로 꼽히는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아우르는 실참수행 선지식 각산 스님 등이 나선다.

커리큘럼은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교재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교리체계로 입문자 및 불자들에게 현시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3월 22일 개강 7월 12일 종강으로 현장강의는 100명,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강의는 200명 접수가능하다. 수강료는 9만원이다. 1577-3696 노덕현 기자

불교계 한마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더프라미스, 1만 달러 모금
동행 · 상월결사, 구호 캠페인
사노위, 침략 규탄 기도회도


조계종 사노위는 3월 11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불교계가 전쟁 발발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긴급 모금캠페인과 모연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난민들의 식량과 의료품 지원을 위해 1만 달러(한화 1200만 원 상당)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더프라미스는 모금액으로 우크라이나와 피난민들이 대피한 인접 국가에 식량, 의료품,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메디피스와 세계봉공재단 연합모금 및 합동대응으로 진행되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협업한다.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는 3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긴급구호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현진 스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통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다”며 “어린이 · 여성 등 피난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차후 조계종 · 상월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교계를 넘어 전방위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모금액은 평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난민들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3월 11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무력을 앞세운 침략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모두가 불행해지고 대물림되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러시아는 당장 무차별적인 살상을 멈추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회 이후 스님들은 ‘전쟁 반대 NO WAR’ ‘살생과 폭력을 멈춰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을 돌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발원했다.

한편 러시아는 2월 24일 미사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인 지역에도 대대적으로 공습을 진행하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임은호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4기 대원청년불자상 수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3월 10일 대원청년불자상 · 동아리상 제4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증서 수여식과 함께 86건에 대해 총 2억 1600만 원의 장학 지원금을 전달했다.

대원청년불자상은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침체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제4기 불자상 · 동아리상은 지난 1월 공고를 낸 이후 접수된 116건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불자상 45명, 동아리상 4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3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명, 대학원생 11명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41개 단체다.

제4기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2억 1600만 원이 지급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5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5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칙제·개정, 2022년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2566(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안 건 : ① 회칙제·개정의 건
②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③ 2022년 사업승인 및 예산심의의 건
④ 기타 안건

불기2566(2022)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템플스테이 공익성 강화…사찰 문턱 낮추겠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경 스님은…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사미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천 덕주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1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으며 템플스테이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7년에는 문화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2002년 5월 11일 김천 직지사에서는 ‘월드컵 기념 주한외교사절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핀란드, 호주, 헝가리를 비롯한 24개국 대사 부부 등 50명이 참여해 국내외적 관심을 모았다. 이는 ‘템플스테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한국관광사에 큰 족적을 남긴 ‘템플스테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가 운영 20주년을 맞는다.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누구보다도 그 소회가 남달랐다. 2014년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2017년 단장으로 취임한 이래 8년을 템플스테이의 성장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원경 스님은 “앞선 선배 단장 스님들이 템플스테이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화 · 안정화시켰고, 실무자와 현장 지도법사 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템플스테이가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다. 모든 구성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체험 · 체득, 템플스테이 성장 동력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한 템플스테이는 현재 143개의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2~2005년 초반에는 연간 참가자수가 10만 명 수준이였지만 2015년 40만 명을 돌파했고,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연간 참가자 53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참가자는 205개국 600만 명에 달한다. 시설도 남녀만 구분해 대방에서 단체 숙소를 사용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개별 숙소와 화장실을 구비한 사찰들이 많이 증가했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됐던 2002년에는 월드컵으로 한국을 찾는 귀빈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체험을 제공하고자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 교회, 서원 · 향교에서도 비슷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33개 사찰로 시작했는데 20년동안 143개 사찰이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죠. 교회나 성당은 1~2년 정도 지나고 전부 없어졌고, 서원 · 향교는 3~5곳이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시작한 이웃종교의 체험프로그램은 없어지거나 성장하지 못했지만, 유독 템플스테이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원경 스님은 ‘체험’과 ‘체득’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수행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산사에서 수행자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환경, 스님의 수행과 삶은 시대에 따라 조금 변화해지만, 큰 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사찰에서 유려한 자연환경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스님의 절제되고 소박한 생활을 ‘체험’하며 참가자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뒤져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유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보니, 국민과 세계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공익으로 넘다

위기가 없던 것도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햇수로 3년동안 템플스테이는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사찰들이 방역을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방역 지침이 강화될 때마다 템플스테이는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사업단은 다른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바로 ‘사회 공헌’이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진행했고, 코로나로 시름하는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에게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를 위해 1차 접종자 및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의 3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은 방역 관련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직군이죠. 이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나고 공연 · 전시를 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위로하는 템플스테이도 하게 됐죠.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사찰음식의 경우 비대면 해외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호응이 좋았습니다.”

원경 스님은 이 같은 ‘사회 공헌 템플스테이’를 향후 지속 ·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사회 공익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꾸준한 성장세로, 2018~2020년 공익 템플스테이는 전체 참가자의 7.1%에 해당하는 8만 9000명이 참여했다.

사실, 공익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운영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처음에는 개별 사찰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했다.

이후 2010년에 들어서 불교계 단체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문화사업단은 ‘공익 템플스테이’라는 명칭으로 복지관 · 청소년 보호관찰소 · 고아원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사찰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1월 문화사업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문제 치유 · 재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템플스테이 사회 공헌성을 높였다. 이는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정신 및 감정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업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등의 제작으로 이어져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2015년~2017년에 진행된 ‘템플스테이 심신 치유 효과 연구’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행동심리학적 효과뿐 아니라 마음챙김과 회복탄력성 개선 및 뇌 기능 향상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에는 템플스테이가 어떻게 적응할지 궁금해졌다.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Metaverse)의 활용 방안부터 물었다. 이내 돌아온 스님의 대답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였다.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가상공간에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체험이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차산업기술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는 유형의 자산을 잘 유지 · 보존 ·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 만족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10~20대는 메타버스를 잘 이용하겠지만, 40대만 넘어가도 메타버스 활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절집이 절 밖의 삶을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1700년 불교 역사를 보면 천천히 가도 빨리 가는 겁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변화한 트렌드에 맞춰 나갈 것을 계획 중이다. 정중동(靜中動)의 변화다.

“이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가족공동체 참가가 많았다면, 지금은 개인이 많아요. 개인 참가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친구랑 2명이 와도 따로 방을 달라고 하죠. 이런 변화에도 템플스테이는 적응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인 만큼 ‘회복 탄력성’을 사람들에게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업 ‘다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세이지만,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들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스무 살을 맞은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등 특별프로그램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어르신, 장애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힌 ‘마음 더하기 템플스테이’도 무료 · 할인 운영한다.

또한 ‘사찰음식 마음 더하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찰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사찰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등 사회공익 · 나눔 템플스테이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5월과 11월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5월의 기념행사는 그동안 템플스테이 운영 · 정책에 관여한 기관, 외신 기자 등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20년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사진전과 도록 발간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찰을 찾기 어려웠던 소외계층들을 위한 ‘마음더하기 템플스테이’도 문화사업단의 향후 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사회 공익 · 공헌’은 불교적인 말로 하면 ‘회향’이죠.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산문(山門)을 열고 한국불교문화를 향유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점점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년사’ 발간 사업을 비롯해 △20주년 성과 · 발전방향 연구 △템플스테이 건강치유효과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성, 중장기 목표를 진단하며, 템플스테이의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사들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미주 · 유럽을 방문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알리는 사업을 시행하며, 코로나 상화에 맞춰 6건의 온라인 해외 홍보행사도 진행한다.

국내행사로는 2002년 세계에 첫 산문을 열고 세계를 감동시켰던 템플스테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체험 AGAIN 2002’을 통해 새로운 불교문화체험의 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K-컬쳐가 유행하기 전부터 템플스테이는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번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새로운 20년을 위하여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문화사업단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찰음식 홍보사업이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비롯해 대중화를 위한 교육 강좌 및 문화행사, 세계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찰음식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명문 요리학교 르꼬동 블루 런던캠퍼스와 협약을 맺고, 한국 사찰음식 강좌를 온라인으로 열기도 했다. 세계인들이 사찰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로 스님은 ‘철학’을 꼽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종교음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찰음식처럼 역사와 철학을 가진 음식은 없죠.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 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마저 수행인 사찰음식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해외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한국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입니다.”

원경 스님은 스무 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20년을 위해 특화 ·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홍보 사업을 더 안정화 시키고 국민과 세계인이 당연히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사찰마다 특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나눌 필요도 있죠. 회향을 위한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도 지속 · 확대할 겁니다. 앞으로 20년을 위해 템플스테이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말미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나를 위한 보답”이라고 정의했다.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한 쉼이란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하루정도 보상을 해주는 게 템플스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정도 몸과 마음을 쉬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죠. 물론 사찰에서의 하루가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템플스테이에서는 그 부족함, 불편함마저도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템플스테이의 매력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계기로 시작
33개 사찰서 ‘143개’ 사찰로 확대
20년 동안 205개국 600만명 참여

코로나 유행에도 공익사업 전개해
의료진 · 봉사자 · 소상공인 등 위로
“사회 공익, 지속 확대시킬 계획”

20주년 맞아 다양한 사업 준비 중
5 · 11월 두 차례 걸쳐 기념식 개최

메타버스 시기상조…“때론 천천히”
“불편함을 체험…템스테이 매력”



불교文人 · 장애인이 예술로 전하는 위로

부산불교문인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展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사상갤러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발달장애인 미술 등 30여 점 전시
지난해 말부터 글쓰기 · 작품 활동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자리 마련


부산불교문인협회는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전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개최한다. 사진은 3월 7일 열린 개막식 테이프 컷팅 모습.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40여 명의 미술, 공예작품 10여 점을 비롯해 시와 그림을 담은 시화 작품 30여 점, 수필 등이 전시된다. 작품 활동에 동참한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다. 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자립생활과 지역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3월 7일 열린 개막식은 테이프 컷팅 및 인사말과 작품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차정연 부산문인협회 회장, 양원식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신상해 부산광역시시의회 의장, 부산문인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람객들은 시와 미술 작품을 보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작품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리고 적은 내용을 담아 완성했으며 '설날', '벚꽃', '튤립', '나는 새' 등 일상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을 주제로 기획됐다. 작품에 찍힌 QR코드를 관람객들이 핸드폰에 입력하면 작품을 직접 낭송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작품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발달장애인들이 2년 여간 틈틈이 제작한 작품들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라온누리에 입주해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글쓰기 수업 및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하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은 "관계와 소통의 소중함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이번 전시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다영 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전시"라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신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문학에 담아 전하고 있는 불자 문인들의 모임이다. 문학 활동 뿐 아니라 사찰 순례 법회 및 봉사활동을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마스크 3000여 장을 나누며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매년 실상문학상을 수여해 불자 문학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상문학상은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지난 1998년에 제정한 상이다.

부불대, 2022년 1학기 입학식 봉행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이하 부불대)이 3월 7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2년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학교발전기금전달식 △입학생선서 △환영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 시국으로 학생모집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부불대는 불교엘리트반 130여 명을 비롯해 불교학과, 기초교리학과, 불교문화학과, 불교문화 전문지도사반 등에 총 2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부불대는 이번 해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부불대는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도심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 대표주자이며,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캠페인과 '남북평화통일기원 3보 1배', '소외계층 위한 연탄나누기' 등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교 이후 졸업생 1만 5000여 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 선언

3월 8일 교구종회서 선언문 낭독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원통전에서 진행된 교구종회에서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언식 후 단체 기념 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원통전에서 진행된 교구종회에서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찰은 수천 년간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살아왔다"며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생명살림 사상과 우리 사찰의 실천으로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가 정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영축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 말사 사찰수행환경 및 자연 환경보호 활동으로 난개발 방지 △법회 및 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 지속적 홍보 △산림법에 명시된 사찰림을 보존하고 가꾸어 맑은 공기와 푸른 환경 제공 △일상생활 속 친환경 제품 사용 및 검소함 실천 △불교대학총동문회와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플로깅(plogging)운동 전개 등을 꼽았다.

스님들은 교구종회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살림 실천선언 후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어른 스님들은 나무 하나, 꽃 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불교의 삶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것을 덕목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며 "불교 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지구와 생명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며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이라도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공존하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기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전국교구본사 및 서울 주요 사찰들이 본격적인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백양사를 비롯해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탄소제로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한 해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 한국정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동명불원,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3월 10일, 불교대학 입학생 70명 수계

수행정진, 불제자 서원 자리
"수계하면 지계신장들 도움"



(재)부산동명불원이 3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법회는 동명불원 불교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입학을 맞아 수행으로 정진하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수계의식은 대종오타로 시작해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비 대신 관정 의식으로 이어졌다. 참여 대중은 참회진언을 외며 관정을 받았고 수계의식은 귀의, 선계상, 발원, 회향, 계첩수여 순으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은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갈마아사리는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 교수아사리는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이 담당했으며 불교대학 입학생 70명과 일반인 5명이 참여해 계를 받았다.

전계대화상 덕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은 계체(戒體)가 된다. 계체가 되면 지계 신장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모든 일을 원만히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지계자와 파계자로 나눠 분류하셨다. 그만큼 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계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동명불원은 도심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동명불원 불교대학은 사찰 예절부터 불교교리, 팔관재계 등 불교의례와 경전, 수행 실참 등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3월 3일 개강해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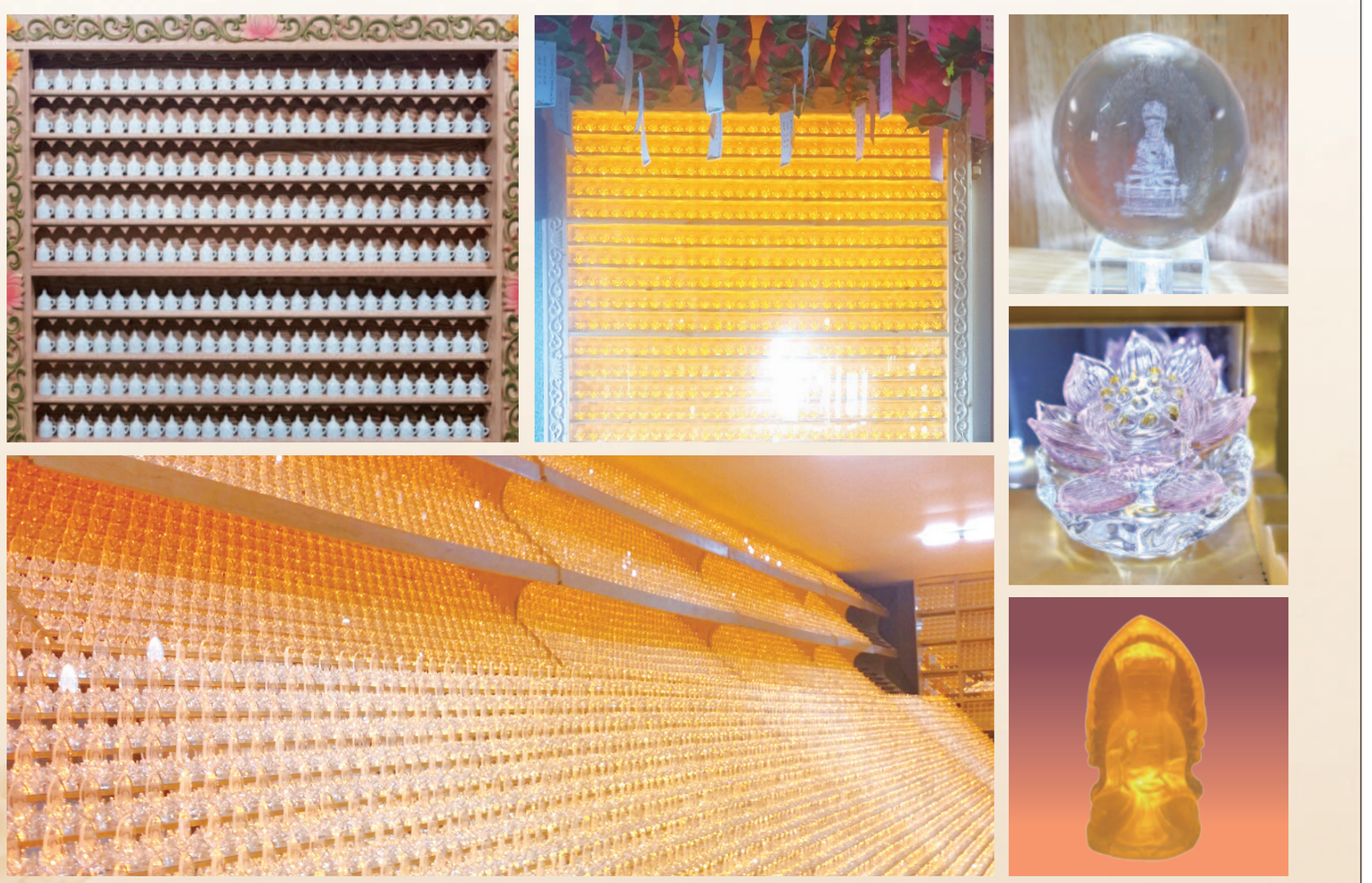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3월 8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2022년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교육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前 범어사승가대학 강주 용학 스님을 강사로 초빙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36명의 조계종 스님이 등록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내년까지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2년간 승려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려연수교육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연수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해인사, 화엄경 낭독 39개월 대장정 입재한다

대적광전서 3월 19일 대장정 입재법회 개최

방장 스님 특별법문 내리고
무비 스님 강설도 진행 예정
3년 3개월 간 총 39회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는 3월 19일 1시 경내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개최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19일 1시 경내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개최한다.

화엄경 완독 대법회는 80권 〈화엄경〉 전권을 총 39회로 나눠 매달 1회씩, 총 39개월(3년 3개월) 간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읽고, 법문하고, 사경하는 자리다.

해인사는 "화엄경이 '10바라밀'과 '보현보살 10대 행원'으로 삶과 세상을 보는 올바른 지혜를 열어주고,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이루는 큰 자비를 펼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화엄경〉 완독 대법회 개최사유를 밝혔다.

해인사는 "3년간의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류사회가 질병에서 건강한 삶으로, 빈부격차의 불행에서 고루 번영하는 사회로, 대립과 전쟁에서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는 경전합송, 법문, 사경, 영가시식, 이웃을 돕는 보살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개막법회는 명고, 범종5타를 시작으로 7처9회 예경, 방장스님 개막법어, 화엄경 합송, 무비 스님 강설법어, 약찬게 합송 등이 진행된다. 팔만윤장대 화엄경 경구 뽑기, 뽑은 화엄경 경구 읽으며 해인도 요잡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모든 행사는 정부 및 종단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다.

해인사는 "이번 대법회는 전국 불자들의 보리심을 함양하고 보살행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정진법회"라며 "대법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삶과 세상을 보는 올바른 지혜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이루는 큰 자비를 펼치시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법회 일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와 유튜브(해인사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빛고을불교대학 개교 및 1기 입학식 개최

3월 6일 신입생 50명 참석해 불교 공부 매진 다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반가운 입학식이 열렸다. 개원 100일을 맞은 광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3월 6일 '빛고을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초발심 불자들의 불교교육을 시작했다.

입학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연성 스님을 비롯해 신입생 5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학사보고, 신임학장 및 교학처장 임명장 수여,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발원, 학장 취임사, 청법가, 법문, 사홍서원 등으로 이어졌다.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지만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가르침을 완성해 나아간다"고 설명하며,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점은 '자비행'이다.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들의 근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이날 신임학장으로 주지 연성 스님을, 교학처장으로 이동배 정광중 교장을 임명했다.

이날 학장에 취임한 연성 스님은 "광주처럼 불교 불모지에서 새 불교대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좋은 도량에서 맞는 쉽고, 현실성 있는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대표해 이강명 씨는 발원문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는 지혜를 갖추고자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빛고을불교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간반, 목요일 오후 7시 야간반이 운영되며, 80%의 출석률과 답사 및 수련회, 봉사활동 2회 이상에 참가해야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매주 정기수업으로 사찰예절, 종교개론, 불교개론, 참선법, 기도법, 부처님생애, 문화답사, 기초교리, 예불문, 찬불가 등을 진행한다. 2학기에는 천수경, 반야심경, 특강 등도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협력 체계 구축 완료

선운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터)은 3월 8일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와 상호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조직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조직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2년에는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개별 공동체 사업'과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진행된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률이 상승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명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취임

(사)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이 · 취임식 3월 6일 봉행


신임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이 문화원기를 건네받고 있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이 제3대 이사장 도명 스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3월 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가야문화진흥원 2대 이사장 불인사 송산 스님, 여여정사 도명 스님, 장유사 해공 스님, 자비도량회장 혜진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연화사 범일 스님, 안국선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하림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외 지역 스님, 허성곤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 안상근 부총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취임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연혁 소개, 내빈 소개, 환영사, 축사, 이임사, 기전달식, 취임사, 감사패 전달,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휘호 전달식, 상임이사 및 운영이사 위촉식, 공지사항(축전 및 화환소개), 사홍서원, 폐회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초대 이사장 인해 스님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대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 확산과 불인사 대작불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흥원을 안정화시켰다"며 "'역사계몽운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4월 30일 전주시청 전북 봉축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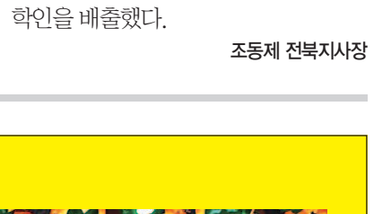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3월 4일 전주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일정과 예산안을 토의했다.

봉축위 회의에는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보문종, 용화종, 천태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완주지역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남궁선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전북청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봉축위는 봉축위원과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 9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의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6탄약창 연등제, 연합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로 이어진다. 4월 3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는 대규모 봉축행사가 열리며 전주 도심에서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35기 불교학과 입학

3월 6일 입학생 총 83명 참석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5기 불교학과 및 제30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6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을 비롯해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태기준 전법사회장, 1회 졸업생 여산 김윤봉 거사 등 대학관계자와 불교학과, 법사과 입학생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례, 연혁보고, 입학선언, 입학생선서, 입학식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는 권명준 학인을 비롯한 불교학과 57명과 법사과 김남수 학인을 비롯한 26명 총 83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학인대표 불교학과 김주섭 학인은 선서를 통해 "영예의 입학을 허가해 주심에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불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것"을 선서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불교는 인문학과 신앙이라는 양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라며 "믿음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이해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삿된 견해가 자란다"고 인문학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불교대학은 믿음과 이해가 조화를 중요시한다. 인문학, 철학, 역사, 문화가 함께 답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준비했다"며 "1년 후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걱정 말고 다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이자 포교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전북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30여 년간 시민강연회, 인문학 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초청법회, 보살계, 산사수련회, 철학과 문화가 있는 문화재답사 등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전북불교대학은 지금까지 3567명의 졸업학인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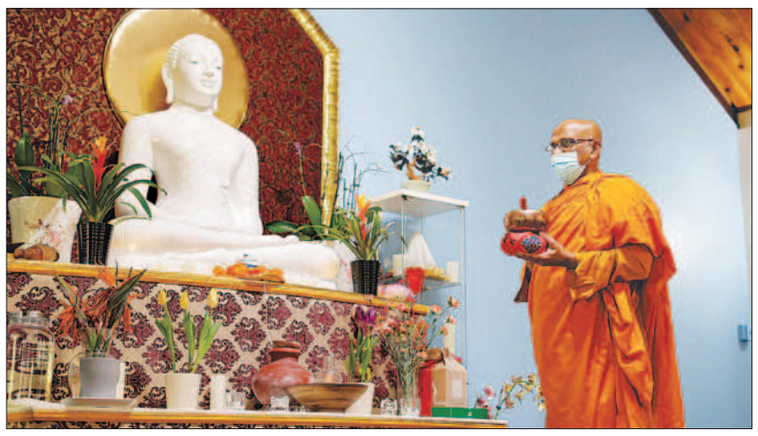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십자가 대신 불상…오래된 美교회 사찰 변신

스리랑카 출신 수타다라 스님
캘리포아니아주 옛 교회 구입
지역주민 대상 불교·명상 교육
"모두에게 열린 공간 만들 것"

박영빈 객원기자


교회에서 사찰로 변신한 캐머릴로 불교센터에 봉안된 불상과 수타다라 스님. **사진출처=디 아콘**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교회가 사찰로 변신했다. 십자가 대신 불상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불교와 명상을 가르치는 도량이 된 이 현장을 3월 4일 미국의 '디 아콘'이 특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캐머릴로시, 배리 스트리트의 주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뾰족한 첨탑과 십자가가 교회임을 보여 주지만 이곳은 스리랑카 출신의 수타다라 스님이 이끄는 '캐머릴로 불교센터'다. 예배당 내부에 십자가가 걸려 있던 자리엔 1m 높이의 불단이 설치됐고 테라와다 불교 스타일의 불상이 봉안됐다. 캐머릴로 불교센터 측은 "보이는 것처럼 본래 이곳은 개신교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가 이전하면서 건물만 남아 있었던 것을 구입해 새롭게 불교사원으로 문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곳을 이끄는 스리랑카 출신 수타다라 스님은 1980년대에 언어학을 공부하기위해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오면서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는 워싱턴 DC 불교사원들에서 영어로 명상과 불교를 가르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이 직접 영어로 명상과 불교를 가르친다는 점이 아시아권 이주민이 아닌 서구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를 비롯해 많은 아시아 이주민 불교신자들도 스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더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기로 결정하면서 이곳 캐머릴로 불교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캐머릴로 불교센터 측은 "센터 개원을 위해 많은 분들의 보시금과 여러 재원을 마련해 지난해 7월, 이 오래된 교회와 사목관을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7천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방치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실제로 개원한 것은 지난 1월 1일"이라고 센터가 개원하게 된 내력을 전했다.

2007년부터 수타다라 스님의 지도하에 명상을 수행해온 가톨릭 신자 펫 탈만은 "캐머릴로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며 "이곳은 수타다라 스님과 함께 수행하기에 완벽한 장소다"라고 센터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탈만은 "캐머릴로의 지역 공동체는 이곳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막 문을 연 곳이라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탈만은 수타다라 스님을 돕기 위해 직접 명상반과 요가반을 만들어 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다.

수타다라 스님은 가톨릭 신자가 명상을 가르친다는 주변의 의문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모든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관대하고, 타인을 돕고,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불자"라며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캐머릴로 불교센터는 센터의 목표 중 하나로 '학문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불교를 가르치는 새로운 모델개발'과 '종교공동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에 자애와 연민의 전파'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센터에서는 수타다라 스님의 설법과 명상 강의 외에도 태극권과 요가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 가르침과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中, 티베트 문화 탄압 행동 강령 배포

'일국·일언어·일문화' 정책
불단에 시진핑 사진 봉안 강요

중국이 티베트 문화와 정체성 탄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화의 핵심요소인 불교에 대하여 더욱 강도 높은 제제 도입이 예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의 다국적 영어 뉴스 채널 '월드 이즈 원 뉴스'는 3월 6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문화와 불교 탄압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최근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티베트 불교가 강세인 여러 자치현에 있는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6개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동 강령을 배포했다. 이 강령에 따르면 당원들은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서 어떠한 종교를 가질 수 없고,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유형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당원들은 염주나 호신부, 또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액세서리 착용이 금지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종교적인 자료를 전달하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등의 일도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전통 풍습의 하나로 행해지는 탑돌이나 명절 시기의 사찰참배도 모두 금지됐다.

이번 강령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원의 일가친척에까지 이러한 강령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강령을 따르는 공산당원들은 전원 가택 내 불단 조성과 종교의례를 금지하며, 중앙당의 반종교적 입장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소식통은 "최근 티베트인 가정의 불단이나 사찰의 불단에 시진핑을 비롯해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사진이나 대형 포스터를 봉안할 것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동 강령은 3월 1일 발효된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치'라는 새 규정과 함께 시행됐다. 이 조치는 허가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이 중국과 티베트에서 종교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외 발 유포가 원천 금지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상 뺀빠 체링은 "중국이 티베트에서 '일국, 일언어, 일문화(一國, 一言語, 一文化)'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티베트인들이 한 민족이자 문화로 서서히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온라인 토론에서 티베트, 신장, 홍콩 등지에서 일어나는 중국정부의 인권, 문화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150년 만의 귀향…환지본처한 日관음보살상

폐불훼석으로 흩어진 국보급 불상
감실 봉안됐다 본래 사찰로 이운


150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쇼린지의 관세음보살좌상. **사진출처=마츠모토 시민 타임즈**

일본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천황의 신성성 강조를 위해 일어났던 폐불훼석(廢佛毁釋) 운동으로 일본 각지 사찰이 폐쇄되고 불상들이 파괴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폐사된 사찰에서 유출된 국보급 불상들은 대부분 해외 박물관으로 흘어지거나 인근 사찰로 이운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운됐던 불상이 150년 만에 본래의 사찰로 돌아가게 돼 화제다. '야후 재팬 뉴스' '마츠모토 시민 타임즈' 등은 2월 27일 기적적으로 환지본처하는 관세음보살상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에 귀환하는 관세음보살상은 높이 50cm 갸랑의 목조좌상으로 감실에 봉안되어 보관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왔던 일본 나가노(長野)현 마츠모토(松本)시 의만넨지(萬年寺) 측은 "이 불상은 같은 시내에 소재한 쇼린지(正麟寺)에서 150여 년 전 이운돼 왔다"며 역사를 설명했다. 만넨지 측은 "당시 폐불훼석이 격렬하게 일어난 곳은 막부가 아닌 천황을 지지하는 지역들이었다. 현재는 같은 시로 묶여 있지만, 당시 쇼린지와 만넨지는 서로 다른 영주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쇼린지가 폐사되면서 관음상이 당시 막부의 직할령에 속했던 만넨지로 옮겨와 화를 면했다"고 상세한 내력을 밝혔다.

관세음보살상은 당시 마츠모토 지역 33관음도량 중 24번째 도량 본존불로 모셔져 주민들이 소중히 모셔오던 불상이다. 덕분에 매각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폐불훼석에서 안전한 만넨지로 이운된 것이다. 만넨지 측은 "이운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본당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예경해왔다"고 전했다.

쇼린지의 주지 미야자와 쥰키 스님은 "잃어버린 불상이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희유한 일이며 기적적인 경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불상 귀환은 폐사됐던 쇼린지가 1883년 다시 부흥한 이래 역대 주지스님들의 오랜 소원이었다. 그러나 여러 절차와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방해요소로 번번이 실패, 만넨지와 함께 방법을 모색해왔다.

만넨지 주지 마츠모토 류세이 스님은 "재작년 입적하신 쇼린지의 전대 주지 미야자와 쥰코 스님이 마지막으로 만넨지를 방문하셨을 때 슬픈 눈으로 관음상을 어루만지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오랫동안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번 귀환의 성사는 전대 스님들의 바람이 이뤄진 것 같다는 감상을 전했다.

불상은 3월 1일 쇼린지 본당으로 이운되어 고불식과 봉안식을 봉행했다.

150년 만에 관음상을 맞이한 이날은 마침 쇼린지의 전대 주지인 쥰코스님의 기일이기도 해 대중들의 기쁨이 더했다.

류세이 스님은 "만넨지 주지로 부임할 때의 진산식을 입적하신 쥰코 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봉행했다. 이러한 인연이 겹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쥰키 스님은 불상 귀환에 힘쓴 만넨지와 여러 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이어지는 티베트 탄압 훼불

지난해 이어 세 번째 정책
닥고 지역 불상·사원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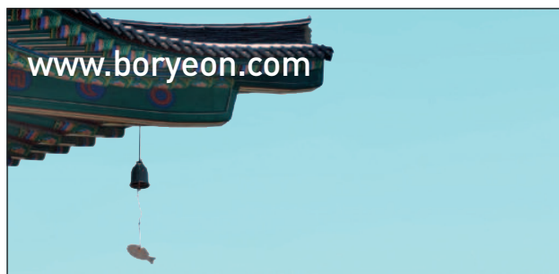

닥고 지역의 차낭 사원. **사진출처=티벳워치**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문화 말살 정책을 지속하며 불상과 사원을 파괴 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티베트와 망명 티베트 전문 언론 '파율'과 인도의 영어 일간지 '더 스테이츠맨' 등 여러 외신들은 3월 3일 중국의 훼불행태에 대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닥고(Drag-go)지역의 치낭 사원 야외에 설치됐던 불상을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닥고 지역은 현재 쓰촨성으로 편입됐으나 중국의 침공 이전까지는 티베트의 행정구역이었다.

파괴된 불상은 8세기경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고승 파드마삼바바의 불상으로 3층 건물 높이의 대불이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또 "차낭사원 역시 대중스님 500명이 머무는 사찰이었으나, 중국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50여 명 가량의 스님들만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3일 촬영된 차낭 수도원의 위성사진에는 3층 높이의 불상과 부지가 보이지만, 지난 2월 25일 촬영된 사진에는 파괴된 불상과 텅 빈 부지만이 보인다. 티베트 망명 소식통 '티벳워치'는 "중국 당국이 스님들에게 불상을 자체적으로 철거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닥고 지역에서의 훼불사건은 지난해 12월 다른 대불과 사원들이 철거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세 번째이며, 이를 SNS와 온라인 등으로 공유한 혐의로 이미 티베트 현지인 여러 명이 억류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모든 현상 소멸…여래 없어도 부지런히 정진하라”



굿바이 붓다
정찬주 지음
동국대출판문화원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소설 〈굿바이 붓다〉는 현대불교신문서 2년동안 대하역사소설 ‘아쇼까’를 연재중인 정찬주 작가가 2011년 출간한 소설 〈니르바나의 미소〉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재출간 한 책이다. 더불어 정 작가의 여러 책에 영국 유학파 출신인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그림이 더해져 글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한다.

소설 〈굿바이 붓다〉의 주 내용은 부처님이 웨살리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다. ‘진리를 깨달아 완전한 존재가 된 부처님이 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런 아난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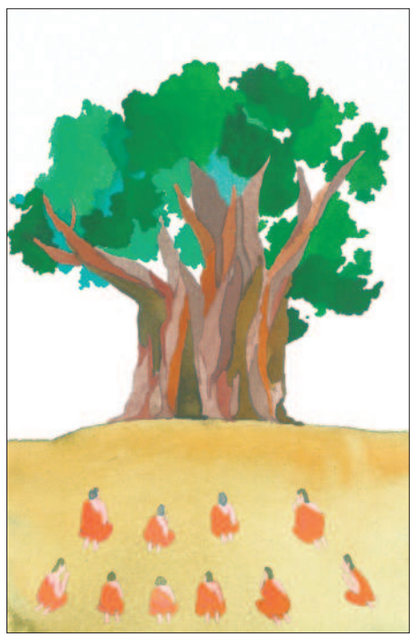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마침내는 헤어져야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부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아난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찬주 작가가 이 소설을 쓰는 데 계기가 되어준 〈대반열반경〉의 중심 사상은 ‘여래상주 무유변이(如來常住 無有變易)’로 표현되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이다. ‘여래는 늘 머물고 계시니, 변함이 없다’. 부처님 육신의 죽음이기에 ‘굿바이’라지만, 번뇌를 완벽히 제거하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不二)을 깨달은 자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기에 부제를 ‘부처님 마지막 가신길-웰컴 니르바나’라 하였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살아서 무슨 일을 했든 의미가 없으며, 권력도 소용이 없다. 초라한 말로를 비웃던 이들도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 죽음을 마주한 삶은 이토록 무지하고 무력하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붓다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답이 이 소설에 면면히 흐른다. 이 책은 부처님의 열반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고, 어느 도시 변두리 숲에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던 3개월의 시간에 작가적 상상력을 버무렸다. 정작 죽음을 맞는 본인은 감정과 회한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소설은 평생을 곁에서 모신 아난다의 눈으로 부처님의 임종을 보여주고 해석한다.



2011년 출간 〈니르바나의 미소〉 새롭게 디자인 재편집해 출간해

부처님과 시봉 제자 아난다가 주고받은 마지막 3개월 이야기

부처님 열반 소재의 장편 소설… 제자 눈으로 임종 보여주고 해석

“생사 다르지 않은 깨달은 자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따뜻하고 정감있는 일러스트 삽화 글맛 풍성하게 해주는 애피타이저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涅槃)’으로 높여 부르는 이유는 지고한 초월성 때문이다. 원어 ‘Nirvana(니르바나)’는 불이 다 꺼져 재만 남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본디 생물학적 사망만이 아니라 번뇌를 완벽하게 제거한 인간을 위한 찬사다. 삶을 붙잡으려는 욕심에서 해탈한 부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심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 외려 주변사람들만 난리다.

부처님을 따르던 다수의 중생은 부처님에게 삶 전체를 기댄 사람들이다. 그만큼 절대적 존재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소식에 다들 오열하고 무서워한다. 그래도 부처님처럼 정각(正覺)을 이룬 아랫사람들은 짐짓 태연하다. 마하까사빠, 사리뿟다, 목갈라나 등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소멸임을 믿는 그들의 표정은 잿빛이다.

반면 부처님이 열반하고 한참 뒤에야 깨달은 아난다의 심리적 충격과 방황은 총천연색으로 어지럽다. 어미 잃은 코흘리개가 연상될 정도다. 다만 그 애도의 진정성이 너무 뜨거워서 함부로 비웃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 걱정에 급히 걷다가 다쳐 발가락이 ‘두꺼비처럼’ 부어오르는데도, 오직 스승의 안위만 생각하는 아난다의 모습은 과연 미련한 존재인 것일까.

저자 정찬주 작가는 초인(超人)보다는 부처님의 인간다움에 우위를 두고 있다. 작가는 후기에서 “부처님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비구들에게 정성을 더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도 연민의 정을 더 주고 있음이 보인다”며 “이 소설을 쓴 나 역시 아난다처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비로운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즉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감화(感化)라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부처님 역시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었기에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고아 출신으로 몸을 파는 유녀(遊女) 암바빨리, 대장장이 쭌다, 장사꾼 뿍꾸사, 무지렁이 시골사람들, 이교도 등등 알고 보면 부처님의 불교는 전혀 불교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포교로 할애됐다. 몸이 ‘낡은 수레’처럼 움직이기 힘들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다. 열반 바로 직전에는 입술을 겨우 달싹일 수 있는 기력으로 진리를 곧질기게 설했다. 마치 참 찐 사랑은 미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 책의 원제(原題)는 ‘니르바나의 미소’였다. 부처님의 열반과 관련해 다양한 일화와 정서(情緖)들이 담겼다. 열반의 원인으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된다. 으레 상한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을 사인으로 보고 있으나, 저자는 독버섯이 죽였다고 말한다. 쭌다가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 최고급 버섯 요리를 공양하려다가 엄청난 사달을 내고 말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지혜의 영역에 있다는 걸 일러주는 대목이다. ‘왕따’를 주제로 한 독특한 일화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부처님과 일가친척이라며 안하무인으로 굴던 마부(馬夫) 찬나를 두고, 부처님은 “찬나를 멀리하라”며 교단에 생애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떠난 걸 알게 된 순간, 찬나는 황망함에 혼절해버렸다. 최후의 훈시를 그가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해가는 지도 찬찬히 읽어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부처님의 죽음이란 파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한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며 자신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밀어내거나 외면한다. 죽음이 두려워 울고 떠는 자들은 그와 동일한 크기로 삶이 좋아서 웃고 떠드는 자들이다. 한편으론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이 남의 생명도 정답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깨달아서 목석(木石)이 될 것인가 깨닫지 못해서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소설에 묘사되는 부처님의 매우 ‘인간적인’ 죽음 앞에서, 더욱 결정이 망설여지는 문제다.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여 마하까사빠의 동굴 모임에 거절당한 아난다는 맨 마지막에 합류했다. 삽따빠르니 동굴앞의 절벽위에서 목숨걸고 7일 동안 정진한 끝에 극적으로 아라한과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의 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남게 되었다. 아난다가 먼저 기억해 말하면 모든 비구들이 합송해 인정하는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해 나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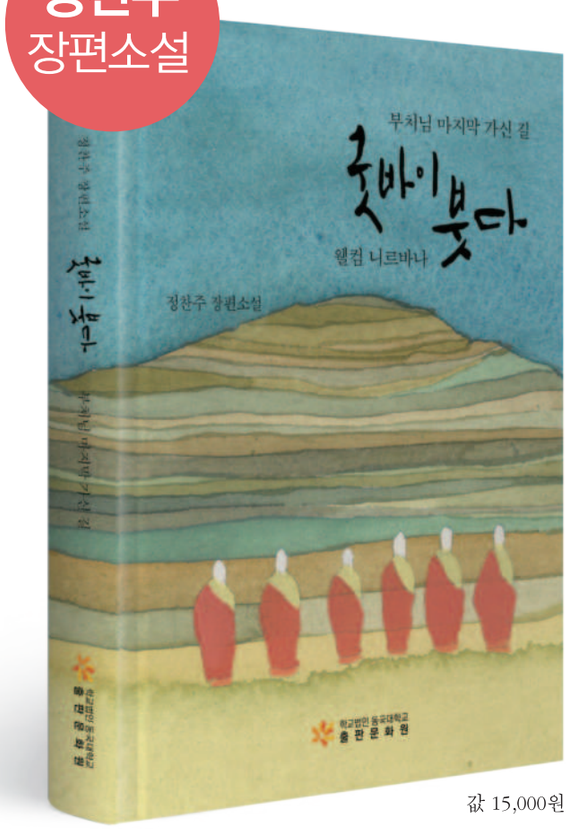
아난다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해 냈고, 부처님이 준 누더기를 평생 입고 다닌 마하까사빠는 총 책임자로서 5백여 아라한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어김없이 남겼다. 그런 귀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소설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웰컴 니르바나’ ‘굿바이 붓다’. 붓다의 죽음은 큰 가르침에 목마른 뭇 중생들에게겐 분명 거룩한 감로법문 이였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5 3/9~3/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아가는모든순간을기적으로바꾸는틱낫한명상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2	진심직설	보조지눌/원순	법공양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람림)/증보판*양장	초펠 편역	하늘호수

정찬주 장편소설



값 15,000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http://dgpress.dongguk.edu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굿바이 붓다

웰컴 니르바나

“코로나19 팬데믹,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인류의 불행”

“혼란과 두려움!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소설 〈굿바이 붓다〉는 부처님이 웨살리에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다.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헤어져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화(感化)다!”

– 작가 정찬주 –

3천여 스피커로 재현한 성덕대왕신종

스피커 3088개로 성덕대왕신종 재현한
한원석의 설치미술 작품 '형연(洞然)'


한원석 작가

경주엑스포대공원 엑스포문화센터 전시
작품 앞 서면 음악 같은 종소리 들려와
버려진 존재 가치에 재생의 삶 부여해
PET병 이용한 불국사 다보탑 구상 중


한원석 작 '형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200년 전에 봉덕사에 걸렸던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봉덕사종, 에밀레종)이 다른 이름 다른 소리로,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재현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2월 18일 엑스포문화센터 내에 한원석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형연(洞然)'을 설치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형연'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는 뜻으로 3088개의 버려질 스피커를 모아 성덕대왕신종을 재현한 설치미술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 앞에 설치된 발판 위에 올라서면 높이 3.7m 폭 2.3m 규모의 거대한 황금빛 종으로 변신한 3088개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한 종소리가 흘러나온다.

종소리는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베이스로 해 음악화 작업을 거쳤다. 그래서 기존의 종소리가 아니라 예전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뼈대로 한 한 편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에 의하면 성덕대왕신종과 스피커로 재현한 신종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역할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소리' 속에서 다른 소리를 모색했다. 그 옛날 범종의 역할과 전시장의 예술작품으로 서있는 '형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유산, 즉 남겨진 흔적에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흔적에는 상처도 있고 유물도 있습니다. 작품 '형연'은 곧 버려질(상처) 스피커로 위대한 유물(성덕대왕신종)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폐기처분될 스피커들을 활용해 더 이상 타종되지 않는 성덕대왕신종을 오늘날의 소리와 모습으로 재현했다. 이들 오브제는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형태는 있으나 원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운명체였다. 그러나 그 3000여 개의 작은 스피커들이 모여 1200년 전의 '성덕대왕신종'이라는 유전자를 받아 존재와 염원을 담은 '형연'이 됐다. 작품 '형연'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작품 '형연'은 한 작가의 2008년도 작품으로, 6000번의 납땜 작업과 기타 작업들을 거쳐 1년여 만에 완성됐다. 당시에 한 작가는 버려질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스피커의 정체성인 '소리'에서 표현의 대상을 찾았고 그것이 성덕대왕신종이었다.

범종은 법구사물 중의 하나로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 불구이다.

범종은 본래 대중을 모으고 때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조석예불이나 의식을 치를 때 치게 됐다.

치는 횟수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28번은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까지 이어진 법맥이 28명이란 뜻이고, 33번은 불교의 세계, 곧 33천을 의미한다.

108번은 백팔번뇌를 여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이다. 종소리가 지옥으로 울려퍼지라는 의미에서 종 입구는 아래를 향한다.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으로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고자 했으나 완성은 혜공왕 때인 771년에 이루어졌다.

처음엔 봉덕사에 조성했으나 수해로 봉덕사가 폐사되어 영묘사로 옮겼다. 1915년 8월에 종각과 함께 박물관으로 옮겼고 국립경주박물관이 신축 이전하면서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 경내로 이전됐다.

현존하는 최대 범종으로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각 부분의 양식이 화려한 동종의 하나이다. 상원사동종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범종을 대표한다.

동종을 완성했을 당시는 통일신라의 예술이 각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로, 성덕대왕신종의 완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동종의 명문은 종명鐘銘)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문장 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인 동종의 조각기법은 동양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종인 동시에 상원사동종과 더불어 최대의 조각양식을 구비한 동종이다. 종신에 2구씩 마주보는 4구의 비천상은 연화좌 위에 무릎을 세우고 공양하는 상으로서 주위에 보상화(寶相花)를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게 하고, 천상으로 천의(天衣)와 영락 등이 휘날리고 있는 것은 다른 신라 동종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비천상으로 한국비천상의 대표가 되는 조각수법이다.

한원석 작가는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로 2003년 아트사이드 갤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2014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등 11번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에는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첨성대를 재현한 작품 '환생'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제가 작업하는 작품 중의 불교 유물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접근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 유물들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우리의 오래된 문화이자 '우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겨 있는 흔적들을 재현해 내는 작업입니다."

한 작가는 다음 작품으로 불국사의 다보탑을 계획하고 있다. 소재는 PET병이다. 사용한 PET병을 모아 경주 시민들과 함께 작업할 계획이다. 올해 말 완성한다는 목표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재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작품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54)748-3011.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8' 공모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4월 중 1차 심사 결과 발표
7월 단체전, 8월 2차 심사
최종 선정자 11월 중 개인전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도약의 단초 8' 공모를 개최한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생애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시각 예술 분야의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4월 중에 1차 심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7월에 단체전을 개최한 뒤 8월 중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11월 생애 첫 전시 개최를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 멘토링 및 전시 홍보의 지원 등 특전을 받게 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도약의 단초'는 신인 작가의 첫 개인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인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담은 작품 전시를 통해 예술가로서 도약의 발판 마련과 더불어 예술적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과 삶에 대한 인식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세대 간의 공감을 모색하는 탑골미술관의 세대통합 사업이기도 하다.

작품 공모는 공모신청서와 최근 3년간 작품 15점 이내 이미지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우편, 이메일 혹은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www.seoulnoin.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220-8502)로 문의할 수 있다.

탑골미술관은 고연령층 이용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 오디오클럽 '전시 읽어주는 실버도슨트' 채널을 통해 실버도슨트가 직접 쓰고 말하는 음성해설로 작가는 색다른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들이 모여 작품세계를 이야기하며 공통의 키워드를 선정한다. 이 키워드를 연상하며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관람객들도 저마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전시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선배작가와의 만남, 작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는 전문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여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예술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한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슨트, 체험키트 발송,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과 지역, 연령대를 아우르며 관객을 유도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예술적 성장에서 출발의 시점이 같다고 여기지 않기에 누군가의 도약에 나이와 장르로 제한하지 않으려 시작한 도약의 단초가 벌써 여덟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번 만남에 역량 있고 깊이 있는 신인 작가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불전 문인 '불교 생태학'으로 읽다

〈만해 · 김달진 · 조지훈 · 서정주〉



주목! 학술서 김옥성의 〈한국 현대시와 불교생태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만해 등 현대시단 선지식들
'불교생태학' 관점서 조명해
중앙불전 출신 文人 공통점

만해, 연기론 입각 생태사상
"탈근대적 관점서 시사점 커"

만해 한용운 스님, 서정주, 김달진, 조지훈은 한국 현대 시단을 이끈 선지식들이다. 이들은 모두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현대 불교문학의 비조(鼻祖)인 만해 스님(1879~1944)은 명진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1918년 중앙학림 강사로 취임했다. 서정주(1915~2000)는 1933년 박한영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개운사 대원암 내 중앙불전에 입학했으며, 김달진(1907~1989)은 1936년 중앙불전에 입학해 1939년 졸업했다. 조지훈(1920~1968)은 1938년 중앙불전에 입학해 1941년 불전이 개칭된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들은 불교적 시학 세계를 펼치며 한국 현대 시단에 큰 족적을 남겼고, '중앙불전 문인'이라는 독특한 계보를 형성했다.

김옥성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출간한 학술서 〈한국 현대시와 불교생태학〉은 현대 불교 문인들의 작품에 담긴 불교적 상상력과 생태 사상에 대해 분석했다.

연기론과 윤회론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사상은 가장 생태주의적인 종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하며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시인들은 불교의 순환과 영원성,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김옥성 교수는 "불교 교리는 생태주의적인 사상들로 충만하다"면서 "만유의 인과성과 상호의존성을 담고 있는 연기론은 불교사상의 생태주의적 면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연기론은 근대과학과 신과학 차원에서 근대적 가용성, 대안과학의 가능성이 진단됐다. 연기론은 불교가 갖는 현대사회에서의 적응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불교의 연기사상에 호흡을 댄 연기적 상상력은 불교 계열 시인들의 시에 폭넓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만해 스님의 평등주의와 구세주의, 조지훈의 생명과 사랑의 시론까지,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서 생태주의적인 사유와 상상을 바탕으로 불교적 시학을 전개해온 시인들의 문학론을 조명한다.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전개되는 현대 미학으로서의 불교적 시학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한국 현대시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교 생태학적 상상력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낸다.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적 시학, 불교 생태시학, 선적 미학 등의 개념을 고찰한다. 불가 계열 시인으로 대표되는 만해 한용운, 김달진 등의 문학을 살펴본다. 생태 사상에 기반한 만해 스님의 시 세계를 살펴보자.

저자는 만해 사상의 요체는 "불교를 토대로 한 근대의 수용과 탈근대적 비전"이라고 봤다. 만해 스님은 불교를 사상적 기저로 선택해 유교적 국수주의와 거리를 뒀고, 비판적으로 근대를 수용해 기독교 · 이슬람교 · 유교 · 불교 등의 미신적 요소를 비판했다. 나아가 불교를 토대로 근대 계몽에 대한 계몽의 자세를 취하며 탈근대적 전망도 확보한다.

만해 스님은 자연에 인과론적 질서가 내재하며, 과학적 지식과 이성으로 물질과 에너지 세계의 인과론을 파악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만해의 생태주의를 "만물이 평등하며, 인과론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는 만물이 펼치는 인과론적 상호작용의 유기체"이며 "타자는 인과론적으로 자아를 탄생시키는 원인자이므로 어버이와 같다. 타자를 존중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대과학과 불교의 선택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만해의 생태주의는 최근 근대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급부상한 생태학 담론에도 뒤지지 않는 참신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해의 생태주의는 탈근대적 전망으로서 동양 사상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오늘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미당 서정주가 보여준 작품 세계 속 '중생일가관'은 만해의 사상과 유사하다.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세계를 유기적 전체로 파악하고 자아와 우주의 구성원들을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며, 나아가 자아와 우주 전체를 동일시한다.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당은 삼국시대 역사에서 '오래된 미래'로서 선조들의 세계관을 찾았고, 이를 근대 미학의 영역으로 끌어 올려 자신의 고유한 사상과 시학 체계를 세웠다.

저자는 "만해와 달리 미당은 불교적-신비주의적 세계관으로 근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결코 외부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다"면서 "비록 환원론적 오류를 안고 있지만 근대와 불교를 화해시키면서 독자적인 생태사상과 사학의 틀을 견고하게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조지훈 시인은 유가 계열 시인으로 인식되지만, 유불선을 비롯한 동양적 사유를 전개하며 다양한 종교적 시학의 관점을 보여줬음에 저자는 주목했다. 이외에도 불교적 관점에서 간과된 시인들의 불교적 사유를 다양하게 밝혀내며 불교시의 문학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와함께 저자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불교 생태시학은 미학적이며 윤리적 의미를 가짐을 강조한다. 그는 "산업화 시대 이전 시인들의 불교 생태사상과 상상력은 후배 시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생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미래의 시인들에게도 풍요로운 생태시학을 위한 시적 자양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현대시사에서 불교 생태학적 상상력은 해체주의 · 파괴주의 · 반생태주의에 맞서 서정시의 본령을 고수해온 만큼, 차후에도 시대적 요청에 반응하면서 한국시의 미학성과 윤리성을 지켜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교육 문제, 불교서 길을 묻다

불교평론 봄호서 특집 다뤄
가정 · 학교 · 대안교육 분석
불교적 관점서 해결책 모색
1월 열반 틱낫한 스님 추모



한국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특집을 다뤘다.

만해사상실천회는 3월 1일자로 〈불교평론〉 2022년 봄호(통권 89호)를 발간했다. 봄호 특집으로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와 불교'가 마련됐다.

이번 특집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의 실태와 그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 특집 논문으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비롯해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위한 불교의 지혜(정대련) △학교교육 현실과 불교(신희정) △사회교육의 현실과 불교적 대안(이송곤) △사교육 문제의 고통과 불교적 해법(박범석) △대안교육의 방향과 불교적 접근(법인 스님) 등이 실렸다.

특히, 박병기 교수는 "교육문제로 인한 고통은 개인적 고통임과 동시에 사회적 고통"이라며 "'고립성과 이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이라는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적 인간관은 이제 상호의존적 인간관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사장 법인 스님은 척박한 불교계 대안학교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공간, 수행, 문화 등의 토대와 토양은 대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와 시민성을 뛰어넘는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대안교육에 적합한 방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모특집으로 지난 1월 열반한 틱낫한 스님을 기리는 지면을 마련했으며, 논단에서는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서구 불교의 학문적 형성과 전개'를 통해 서구에서 불교가 학문적 대상으로 떠오르는 과정을 살펴보며, 서구의 종교학적 방법론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분석했다.

기획시리즈 세계의 불교학자는 중국 근대 불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어우양젠(歐陽漸)과 독일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불교소설은 지난해 유심작품상을 수상한 여류소설가 이경자 씨가 신작 단편 〈낙산사〉를 선보여,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사찰의 의미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메타버스 불교콘텐츠 만들어 볼까

문화재청,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3월 28일부터 4월 30일 접수
디지털 전시 · 메타버스 분야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관련 대국민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분은 △디지털 기획 · 콘텐츠(디지털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3차원 입체(3D)모델링, 3D 프린팅 등) △문화유산 메타버스(아바타 디자인, 오브젝트 모델링 등) 2개 분야이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참조하면 된다.

부문별로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 대표성, 충실성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본선 우수팀(또는 개인)을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과 조언을 거쳐 분야별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총 2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2 디지털문화유산전'(6월 예정,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특별전시와 함께 진행되며, '경주 국제문화재산업전(9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의 일상화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Taeko Order of Buddhis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7

▶ 58회 예고
칼라따까 수상의 심복인 친위대 조장이 탁실라에 도착하자, 미리 가 있던 특사는 소요를 조종한다. 친위대 조장은 수시마 부왕에게 빈두사라왕의 귀국명령서를 전달한다. 그러나 수시마는 뜻밖의 소요 때문에 탁실라를 떠나지 못한다.



아쇼까, 형 수시마 때문에 갈등하다

아쇼까는 왕자별궁으로 가지 않고 다르마 왕비별궁에 머물렀다. 1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어머니 다르마와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비가따쇼까와 가능한 한 함께 지내면서 특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마음에 걸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가강으로 나가 기도하고 침전에 들러 문병하는 것밖에 없었다. 생사 운명은 오직 시바신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꼭두새벽에 가족 모두가 함께 강가강을 나가 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비가따쇼까의 손을 잡고 걷던 다르마 왕비가 아쇼까를 뒤돌아보며 감격했다.

"아쇼까, 난 이 시간을 기다려 왔단다! 대왕님만 병석에서 일어나신다면 나는 더 없이 행복하겠구나."

"우리 가족이 모두 기도하니까 강가강의 시바신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에게 빈두사라왕의 안부를 물었다. 가족 중에서 비가따쇼까가 빈두사라왕을 가장 많이 알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가따쇼까야, 대왕님께서는 어떠시더냐?"

"대왕님께서는 곧 일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지만 궁중의원님 얼굴은 늘 어두워요."

강가강 모래밭에는 벌써 기도하러 나온 왕족들이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에 일산을 펴놓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갈매기 떼가 검푸른 어둠 속에서 흰 헝겊처럼 희끗희끗 날았다. 등불을 켜놓고 고기 잡는 배들이 듬성듬성 보였다. 화장터에서는 벌써 연기가 솟구쳤고 잠시 후에는 불길이 날름거렸다.

강물 속으로 들어간 아쇼까는 세수를 한 뒤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쇼까는 꾸날라를 낳아놓고 눈을 감은 첫째부인 빠드마바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꾸날라를 키워준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에게도 고마움의 기도를 했다.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동생 비가따쇼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했다.

이윽고 동쪽하늘에 희부연 날빛이 돌았다. 그러더니 동쪽 지평선에 붉은 놀이 번졌다. 강가강에 나온 왕족들이 일제히 일출 직전의 동쪽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아쇼까의 가족도 강물에 발을 담근 채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다.

브라흐민과 끄샤뜨리야 왕족은 일출 때까지만 강가강에서 기도했다. 그 다음은 바이샤 계급의 상인들이 강가강으로 들어갔고, 수드라 계급의 천민들은 강가강 저편 화장터 아래의 강물에 몸을 적셨다. 화장터에서는 타다만 시신을 강물에 던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독수리 몇 마리가 나타나 강물에 뜬 시신을 쪼았다.

기도를 마친 아쇼까 가족이 다르마 왕비별궁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반대편 쪽에서 두 마리의 말이 다가왔다. 말에는 칼라따까 수상과 라다굽따 제관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렸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왔습니다."

"저도 일정을 당겨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저희들은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옛 꾸루국과 앙가국을 순행하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빈두사라왕이 병석에 눕자, 대왕을 대신하여 옛 꾸루국과 앙가국으로 순행 나갔다가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바꾸어 왔다는 말이었다. 아쇼까를 만나는 것이 그곳의 현안과 민심을 파악하는 순행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순행 중인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와 주시다니 고맙소."

"옛 꾸루국과 앙가국은 가깝습니다. 한나절이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라다굽따의 말 등에 오른 아쇼까는 내성 안에 있는 칼라따까의 저택으로 갔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의 저택을 방문하기는 두 번째였다. 어린 왕자 시절에 스승 목갈리뽓다띳사를 따라서 우연히 들렀던 것이 첫번째였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의 저택 앞에서 말했다.

"대왕님은 뵀소?"

"왕궁 침전으로 갔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라다굽따가 투덜거렸다.

"친위대장이 알현을 막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순행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될 것이오. 오후에 대왕님을 문병할 생각이오."

"부왕님, 고맙습니다."

칼라따까의 저택 2층은 라다굽따와 수시로 만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충직한 하인이 언제나 지키고 있었으므로 누구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다.

"부왕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상님과 제관님에게 감사드릴 일이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분께서 제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어머님에게 들었소."

"아, 그것은 비가따쇼까 왕자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라다굽따가 비가따쇼까의 공으로 돌렸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보다 솔직했다. 그러나 큰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련함에는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앞섰다. 짜파티와 짜이, 바나나, 사과 등이 나왔다. 하인들이 둥근 탁자 위에 조심하면서도 날렵하게 놓고 갔다. 뜨거운 짜이를 한 잔 한 뒤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 빠딸리뿌뜨라에 와 계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10여 년 만에 왕비님, 아내, 동생을 만나는 행복이 크다오."

"저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동안 변방에서 잊고 살았는데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오. 내게 주어진 특별휴가 기간만이라도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소."

"누구보다도 다르마 왕비님과 아상디밋따 부왕비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이오. 다만, 꾸날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소."

아쇼까는 꾸날라가 수시마 부왕을 보좌하라는 빈두사라왕의 명으로 탁실라에 가 있다지만,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사랑하는 꾸날라의 빈자리가 더 없이 크고 허전했던 것이다. 잠시 후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이제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 꾸날라가 어떻다는 것이오?"

"왕궁에는 수시마 부왕님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저와 제관님 같이 아쇼까 부왕님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을 추종하는 신하들은 아쇼까 부왕님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까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동안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이 볼모로 가 있다는 말이오?"

아쇼까는 언성을 높여 물었다.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왕님도 동조했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을 탁실라로 보내라고 명했으니까요."

아쇼까가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그 바람에 사발에 놓여 있던 사과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아쇼까가 턱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신하들이 누구요?"

"친위대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비님을 찾아다니면서 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자들은 대왕님 유고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님을 부추긴 것입니다. 탁실라에 계신 수시마 부왕님을 이곳으로 오도록 말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친위대 조장이 저에게 보고한 사실입니다."

아쇼까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얼굴이 붉어진 아쇼까가 소리쳤다.

"내가 왕권에 욕심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수시마 형님과 나를 이간질시키다니!"

"진정하셔야 합니다, 부왕님. 우리도 이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무얼 세워놓았단 말이오?"

"수시마 부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오시게 되면 결국 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수시마 부왕님께서 이곳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칼라따까의 얘기를 듣고만 있던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수시마 부왕님이 탁실라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형님을 감금하겠다는 것이오?"

"그것은 하수입니다. 수시마 부왕님을 감금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어 부왕님의 발을 묶어놓는 방법입니다. 소요를 진압해야 할 수시마 부왕님께서 어떻게 빠딸리뿌뜨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대왕님의 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탁실라를 떠나시지 못할 것입니다."

아쇼까는 대왕의 유고를 설정해놓고 말하는 자체가 언짢았다. 빈두사라왕의 아들로서 듣고 있기가 거북했다. 대왕 유고시 장자인 수시마 부왕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쇼까가 말했다.

"나는 특별휴가가 끝나면 웃자인으로 돌아가겠소. 수시마 형님도 탁실라로 돌아가셨소."

"부왕님,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송구합니다만 대왕님 유고가 생긴다면 마우리아왕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왕의 대업을 잇지는 못할망정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수시마 형님이 잘 해결할 것이오."

"저희들은 수시마 부왕님께서 마우리아왕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탁실라에 반란이 두 번 일어났을 때 누가 진압을 했습니까? 아쇼까 부왕님께서 탁실라로 가시어 두 번 다 진압하시지 않았습니까?"

칼라따까의 지적이 사실이었으므로 아쇼까는 대꾸를 못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 수상의 말씀은 우애가 좋은 두 부왕님 간의 이간질이 아닙니다.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이 걸린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칼라따까가 다시 말했다.

"아쇼까 부왕님, 사태가 이러하니 웃자인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빠딸리뿌뜨라의 안정과 평화가 더 우선입니다."

"알겠소. 그런데 나는 꾸날라가 보고 싶소. 방법이 없겠소?"

"걱정 마십시오. 친위대 조장에게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올 것을 지시해 두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직속부하 친위대 조장은 칼라따까가 오래 전에 매수한 자였다. 그러니 수시마의 운명은 탁실라에 먼저 가 있는 특사와 친위대 조장 손에 달린 셈이었다. 아쇼까는 형제간의 우애와 라다굽따가 말한 대의명분 사이에서 갈등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의 진심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충정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칼라따까의 저택을 나서면서 자신이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아 몸을 떨었다. 순간, 어쩌면 이제는 웃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뇌리를 스쳤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幻환
香밀작가의 신작!

지혜의 두 경전(經典)
반야심경, 천부경의 실상(實相) 진리(眞理)의 세계,
그리고, 무한 사유의 책이 나왔다.

密(밀)의 작가 최신작
幻(환)1 반야심경, 幻(환)2 천부경, 幻(환)3 사유(思惟),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환1은 반야심경 실상세계를 밝혔다. 환2는 천부경 성통광명 이천진리(理天眞理)의 세계를 밝혔다. 환3은 무한차원 이성(理性)이 깨어있는 지성(智性)의 세계이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84쪽 / 향 2권 316쪽 / 향 3권 352쪽 / 정가 각 25,000원

密밀 1, 2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35,000원
香향 1, 2, 3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23,000원
사유를 담은 가야금 1, 2권 달빛 담은 가야금 1, 2권 박명숙 저/신국변형판양장본/정가 각 20,000원(사유) 각 23,000원(달빛)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❺ 선승의 출가



▶한줄요약
출가는 불교 수행에서 근본이 되는 행위로서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결단에 닿는다.

수행 목표 결정하는 출가 동기 '중요'

1. 출가담

요즘 출가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문을 닫게 된 강원도 있다고 한다. 출가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세태가 삶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애욕을 단호하게 끊는 것을 어렵게 한 탓일까. 불교 공동체가 젊은 구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탓일까. 아무튼 출가의 문제는 세속과 초세속 사이의 '가고 옴'이란 형식적인 면뿐 아니라 거기에 깃든 정신과 의미까지 살펴보게 만든다. 그와 관련되는 안타까운 점들을 성찰하고 참회하기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선승의 출가담을 읽어본다.

출가는 불교 수행에서 근본이 되는 행위로서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결단에 닿는다. 출가의 목표는 출가자 자신 뿐 아니라 뭇 중생의 팔고(八苦), 생로병사(生老病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목표가 처음부터 분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 초발심 그대로가 정각(正覺)이니, 완전한 출가는 초발심에 철저하여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출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출가 후에 더 치열하게 수행하여 출가를 완성시켜가야 한다. 그 단계를 나눈 것이 소위 삼종출가(三種出家)이다. 첫째,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셋째, 생사윤회의 세계인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집을 벗어나는 것[出三界家]이다. 첫째에서 셋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가고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속에도 초세속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자유자재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출가가 세속의 애욕과 팔고를 철저히 잘라버리는 것을 지향하지만, '출가'라는 말에는 이전까지 해오던 일들을 '줄여' 나간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즉,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들 중에서 일정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가치 있고 귀중한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출가를 하면 더 좋은 수행의 여건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계율도 출가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자기 한 몸만을 위해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으며 계율을 지키고 아란야에 살면서 해탈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 출가라 할 수 없다. 크게 정진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고 계율을 깨뜨리는 이로 하여금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하고,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잘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여 광대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자비희사)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고 일체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야 비로소 참 출가라 할 수 있다."

효봉 스님이 출가와 관련하여 들려주신 말씀이다. 출가할 때부터 중생제도를 생각하고 출가하여 수행할 때도 시종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려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고 하신 효봉 스님의 이 말씀은 수행자들이 길이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공경하고 따르면서도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출가자 자신이 겪은 사연과 비원을 외면할 수가 없다. 많은 출가자는 거룩하고 간절하며 기구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들만의 출가 동기를 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출가 동기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단속하고 수행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계율 못지않게 수행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출가 동기는 다양하다. 부처의 법을 듣고 믿게 됨, 부처의 위덕(威德)을 보거나 듣고 믿게 됨, 비구나 장로에게 법을 들음, 세속에 거주하며 사는 생을 혐오하게 됨, 부처나 다른 비구의 신이한 변화를 봄, 자식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에 대해 환희심을 경험함, 아들을 얻는다면 출가하겠다고 부모가 서언함, 타인의 출가를 보고 감동함, 부처의 법을 듣고 이미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됨 등이

완전한 출가는 초발심 정각
대부분 출가 불완전한 출가
치열하게 수행해 출가 완성

출가 동기로 소개돼 있다. 그 외 수명을 더 받기 위해서나 군역이나 형벌, 노예신분 등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비구니의 출가 동기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남편 잃고 수절하기 위함, 수행과 구도를 간절히 기원함, 가난이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함, 주인의 강요를 받음, 사후 하늘나라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함 등이 두드러진 출가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수절을 제외한 나머지 출가 동기는 비구의 출가동기도 될 것이다.

선승의 출가 동기도 이와 유사하지만 특정 동기가 부각되기도 한다. 세속의 변화무쌍함과 중생의 고통번뇌를 출가 전의 선승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선승에게는 탄생과 앞날을 예시하는 태몽이 인상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선승과 그 부모는 태몽을 떠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신비한 태몽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갔던 선승이 출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태몽에서 출가로 연결되는 지점에 균열이 생겨나기도 했다. 선승이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세속의 경험 때문이다. 죽음이나 가난, 사회적 갈등 등 더 직접적인 상황이 출가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 태몽과 유년의 행실 그리고 출가

근대 이전에 세워진 비석 비문의 주인공은 주로 '국사'나 '선사', '대사'로 추앙되고 임금에 의해 시호가 내려진 선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승의 집안은 대체로 지방 호족으로부터 귀족이나 왕족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경이로운 태몽은 권세 있는 집안 혈통의 상징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 선승의 태몽은 민속적 기반과 불보살의 계시, 부모의 기자정성, 간절한 수행 정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니, 그 내용을 계층적 우월감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문에서는 '태몽-탄생-유년-출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도식에 가까운 긴밀성을 보인다. 이 점은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 등 문헌의 고승전이 보여주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선승의 비문은 태몽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아기 선승이 탁월한 능력을 가질 것이며 전생 수행의 선업을 한 몸에 계승할 것임을 암시한다. 아기 선승이 태어나서 자라며 보이는 특별한 행실과 지극한 불심은 태몽이 계시한 바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단계의 출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효봉 스님 진영.

대부분 선승들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마침내 출가하기에 이르는 과정이 비문에서 비슷하게 기술되지만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 774생),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哲, 785생),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 804생), 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 871생) 등에서 그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진감(眞鑑, 774년)국사의 태몽은 한 범승(梵僧)이 어머니를 찾아와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하며 유리 항아리를 주는 것이다. 아기 진감은 태어나서 울지 않음으로써 '소리를 녹이고 말이 없는 도의 싹'을 드러냈다. 7, 8세가 되자 나뭇잎을 향으로 삼고 꽃 공양을 올렸다. 자주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서는 해가 저물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생선 장사를 하며 부모를 공양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무덤을 만들어 길러주신 은혜를 다 갚았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신감(神鑑)대사를 만나는데 대사는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났구나"라며 전생을 환기했다. 숭산 소림사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유리 항아리' 태몽이 마침내 입증된 셈이다.

적인(寂忍, 785년)선사의 태몽은 향로를 든 호승(胡僧)이 어머니의 침상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반드시 법을 지닐 아들을 얻어 마땅히 국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인선사는 강보에 싸여 있을 때부터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한 곳에서는 고요했다. 노린내나 비린내를 맡으면 피를 토하고 짐승 죽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했다. 앉을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는 반드시 합장을 했다. 출가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떤 장애도 없었던 것 같다.

보조(普照, 804생)선사의 태몽은 하늘에서 둥근 해가 어머니 배를 쬔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그 좋은 인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기와 술을 금하고 계율을 지키고 삼보를 섬기면서 태교에 충실했다. 태어난 아기 선사는 체구가 컸고 기색이 윤택했다. 치아가 고르고 금발이 눈을 끌었다. 갓 난 때부터 '세속을 떠나자'는 뜻이 있었고 7, 8세가 되어서는 세속을 버리고자하는 뜻이 분명해졌다. 부모는 부귀나 재색으로 아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여겨 출가를 허락했다.

법경(法鏡, 879생)대사의 태몽은 홀연히 '상서로운 꿈'을 꾼 것이다. 잉태를 확인한 어머니는 정념(淨念)을 닦으며 오신채와 비린내 나는 고기 등을 일절 금한다. 태어난 아기 대사는 법상(法相)을 지녔고 보리심을 품었다. 글을 읽을 때는 다섯줄을 한꺼번에 읽어가는 능력을 보였다. 티끌세상을 여의고 출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부모에게 출가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어 허락했지만 눈물을 보인다.

요컨대 진감국사의 경우에서는 신비한 태몽에서 '은사의 만남과 인가, 구족계 받음'으로 나아가는 서사의 선이 부각됐다. 적인선사의 경우는 유년 때의 특별한 행동이나 자비로운 불심이 부각됐다. 보조선사의 경우는 태몽 이후 계율을 지키고 태교에 온 정성을 다 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또 세속을 떠나가려는 선사의 마음을 부각시켰다. 법경대사의 경우도 태몽 이후 어머니의 정성어린 몸가짐을 강조했고, 법경대사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강렬한 탈속의 마음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출가 과정에서 부모가 눈물을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것은 태몽에서 출가로 이어지는 이음새에 틈이 생겨난 것이라 하겠는데, 조선이나 근대기 선승의 출가 동기가 다양해질 것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반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영가의 작용은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 초보에서 실전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 · 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 · 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❺ 황금뿔 사슴

▶ 한줄요약
부처님과 데바닷다의 전생담은 '구색록 본생도'는 위기에 처한 상인의 아들을 황금 사슴이 나타나 구해주나, 탐욕에 눈 먼 아들이 이를 배신해 과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탑과 사원, 석굴 벽화로도 그려졌다.



악인은 善으로 보답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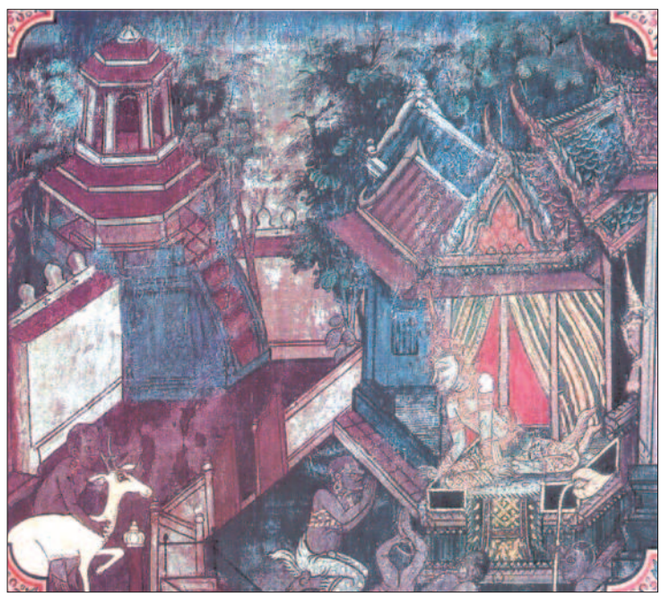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의로 행한 선행이 상대에게 왜곡돼 전달되거나 악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마음의 상처와 함께 '차라리 하지 말 것'이라는 자책이 남게 된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에서 항상 악인으로 등장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 데바닷타(Devadatta, 提婆達多, 調達)와의 전생에서부터 거듭된 악연을 생각하면 후회될 일도 미움으로 남을 일도 없는 듯하다. 그저 '나는 옳은 했을 뿐이고, 당신은 전생의 데바닷타 같은 사람이었나보다' 하고 크게 숨 한 번 쉬고 털어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오늘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혹은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어도 악인은 선으로서 보답하지 못한다는 부처님과 데바닷타와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Bhārhut Stupa)에서는 〈미가 자타카〉(Migajataka), 팔리어 자타카의 내용을 15세기 경 도해한 태국 방콕의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ārn)사원 벽화에서는 〈루루 자타카〉(Rurujataka), 〈불설구색록경(佛說九色鹿經)〉을 도해한 북위 시기(北魏, 386~534) 돈황 막고굴(敦煌 莫高窟) 257굴에서는 〈구색록 본생도〉(九色鹿 本生圖)라고 불린다. 경전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팔리어 자타카의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① 기원전 3세기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에 그려진〈미가 자타카〉



그림② 15세기 조성된 태국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루루 자타카〉의 부분.



그림③ 북위 시기 조성된 돈광 막고굴 257굴 서벽 벽화. 〈구색록 본생담〉내용을 담았다.

부처님께서 죽림정사에 계실 때 데바닷타가 부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자, 전생에도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만 부처님의 덕을 알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설한 것이다. 옛날 바라나시의 한 부자에게 마하다나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부처님 · 데비닷다 전생담 '황금 사슴'
위기의 상인, 황금 사슴 구해줬으나
탐욕에 눈 먼 상인은 사슴을 배신해
무리한 욕심은 항상 화 불러 일으켜
탑 · 사원 · 석굴 벽화에 도상화 남아

쫓기는 신세가 되자 죽기로 마음먹고 강에 뛰어들었다. 그때 전생의 부처님인 황금빛이 나는 사슴이 격류에 떠내려가는 그를 구해주었다. 황금색 사슴은 마하다나카에게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얼마 후 그 나라의 왕비가 황금 사슴이 설교하는 꿈을 꾼 뒤 왕에게 황금빛 사슴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왕이 황금 사슴의 거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금화 · 코끼리 · 미녀 · 마을을 내리겠다는 포고문을 붙였다. 마하다나카는 왕에게 황금 사슴을 찾을 수 있다며, 왕과 군대를 이끌고 황금 사슴이 사는 숲으로 향했다. 숲을 포위한 병사들이 황금 사슴에게 활을 겨누자, 사슴이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거처를 알려준 이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에 왕이 마하다나카를 지목하니 차라리 통나무를 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왕에게 배신자 마하다나카를 벌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왕과 함께 궁궐로 간 황금 사슴은 왕비와 궁인들에게 설법하며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 것을 요청했고, 그 이후로 누구도 어떤 짐승이나 새도 해치지 못하였다. 배은망덕한 상인의 아들 마하다나카는 데바닷타의 전생이었으며, 황금빛 사슴은 석가모니의 전생이었다. 그리고 왕은 석가모니의 최고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Ananda)의 전생이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들을 살펴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기원전 3~2세기경 조각된 바르후트 스투파의 〈미가 자타카〉가 있다. 원형의 화면 안에 석가모니의 전생인 무릎을 꿇고 있는 사슴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나무들 그리고 하단에 물살이 묘사된 강이 조각되어 있다. 좌우에는 사슴의 무리들과 사슴을 향해서 합장을 취하고 있는 왕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병사 그리고 배신자 상인의 아들이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고 있다. 궁사의 옆에서 오른손 검지로 사슴을 지목하는 인물이 데바닷타의 전생인 마하다나카를 묘사한 것으로서, 강에 빠져서 사슴의 등을 타고 뭍으로 올라오는 인물과 동일인이다. 초기 자타카 화면구성의 특징은 하나의 화면에 시간의 순서대로 도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 부분을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상하좌우에 배경이 되는 내용을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조각 역시 이러한 초기의 표현 방식을 취하면서, 원형의 화면 상부에 '미가 자타카' 라고 음각으로 제목을 새겨 놓았다. 이처럼 제목을 써놓는 방식은 초기의 일부 작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서, 아마도 경전의 내용과 도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함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그림①)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비록 15세기이지만, 팔리어 자타카의 내용을 도해하여 한역 경전보다 이른 시기에 성립된 초기 자타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사원 벽화의 〈루루 자타카〉를 보겠다. 사각형의 화면에 높은 담장과 화려한 누각의 궁전이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누각 안에 고깔 모양의 금관을 쓴 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한 인물을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각의 담장 밖에 흰 사슴을 데리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인물은 왕 앞에 앉아 있는 인물과 동일인으로서 상인의 아들 마하다나카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릎 꿇고 있는 마하다나카의 이마 · 목덜미 · 뒤통수 · 가슴 · 옆구리에 점 혹은 종기로 보이는 노란색 점들이다. 이는 팔리어 자타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역 경전인 〈불설구색록경〉에 적혀있는 배은망덕의 벌로 받은 종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②)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역 경전에서는 〈보살본연경 하권(菩薩本緣經 卷下)〉 제7 녹품(鹿品)과 〈불설구색록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경전의 내용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다만 사슴의 색을 〈보살본연경 하권〉에서는 영롱한 칠보(七寶)라고 하였고, 〈불설구색록경〉에서는 아홉 가지의 색을 가진 사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팔리어 자타카에서 황금빛 사슴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한역 경전에서는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귀하게 여겨온 '칠보' 혹은 가장 완벽하다는 숫자 '아홉' 을 경전의 내용에 넣어 중국인들의 이해력과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북위 시기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257굴 서벽에는 〈구색록 본생도〉가 기다란 두루마리 형태의 화면에 도해 되어 있다. 화면의 구성은 뾰족뾰족한 산들을 연이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심인 사슴과 데바닷타의 전생 인물이 여러 차례 반복해 등장하고 있다. 화면의 가운데에는 노란색 몸에 녹청 · 백 · 감청으로 점박이 무늬가 있는 사슴과 왕의 대면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화면 왼쪽 강에서 빠진 인물을 사슴이 업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사슴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사슴의 존재를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는 궁전의 높은 누각에 왕과 왕비가 앉아 있으며, 그 앞으로 마하다나카가 사슴이 있는 곳을 말하는 장면 그리고 화면의 가운데를 향해서 몸 전체에 흰색 종기가 난 마하다나카가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세히 그려져 있다. 말을 탄 왕의 뒤를 따르는 인물은 긴 창 혹은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르후트 〈미가 자타카〉의 활을 든 궁수 대신 묘사된 것으로 짐작된다.(그림③)

팔리어 자타카의 482번째 〈루루 자타카〉와 한역된 〈불설구색록경〉의 차이점은 사슴의 생김새가 황금빛 나는 사슴에서 아홉 빛깔의 사슴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팔리어 자타카에서는 왕이 아난의 전생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한역 경전에서는 위험을 알려준 까마귀가 아난의 전생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전생인 사슴과 강에서 목숨을 건져준 은혜를 배신한 인물이 데바닷타의 전생이라는 두 주인공과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한역 경전과 돈황 257굴의 〈구색록 본생도〉만을 보았을 때는 배신의 벌로 받은 온몸의 종기가 한역 경전의 번역과정에 유입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태국의 〈루루 자타카〉를 통해서 구전되는 과정에 글로 적히지 않았을 뿐 원래의 팔리어 자타카에도 배신의 천벌을 받은 마하다나카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범부인 우리는 내세에 부처로 태어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데바닷타로 태어나지 않으려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새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박원자의 母情佛心 28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 한줄 요약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의 출가는 단순하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공부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고, 졸업하자마자 출가 사문이 됐다.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아들은 스님의 길을 묵묵히 갔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거라"



그림 · 박구원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은 단순 명쾌한 분으로 통한다. 언제 무슨 일로 만나 뵈어도 '다음에 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좋아요, 해봅시다, 지금 하지요"가 전부다. 다음은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를 전부로 사는 수행자다. 가끔 수행의 궁극은 단순 명쾌하게 살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해보곤 한다. 그래서 스님을 뵐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 모습도 수덕사에 사셨던 경허 선사를 떠오르게 한다. 육척 장신에 가느스름한 눈매가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켰던 경허 선사와 꼭 닮았다. 경허 선사께서도 스님처럼 얘기하면서 자주 활짝 웃고 솔직 담백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단순 명쾌함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어떤 일을 두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은 일이나 가지 않을 길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기가 선택한 결정에 충실하면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죠. 본디 성격도 그러하지만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섬세하게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을 사는 수행자다운 답이었다. 출가도 단순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집을 나와 절에서 사는 일이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일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2주 동안 집에서 지내며 짐정리를 했다. 입던 옷도 빨래해 정리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출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서 잘 살아라."

어머니 말씀 끝에 아버지께서 한 마디 하셨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와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어머니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결연히 집을 나가는 아들을 보며 붙든다고 눌러앉을 자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다섯 아들 중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더니 제 작은 형을 따라 도선사 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법회에 나갔다. 법회가 즐거운 듯했다. 돌아오는 데 보면 얼굴이 언제나 환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점점 내면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인 아들이었다.

고 3인 아들이 어느 날 툭 한마디 던졌다.

"엄마, 나 졸업하면 가출할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뭐하고 살거니, 혼자?"

"절에 가거나 취직하거나 둘 중 선택할 건데 아직은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마도 저 애는 출가를 택할 것이다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고를 졸업했는데도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가더니 불교학생회장, 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부회장, 서울 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불교 공부도 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남들은 재학 중에 군대에 가는데 학교에 다니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잠시 가출은 접어둔 것 같았지만 언젠가 절로 가출할 것 같은 느낌은 여전했다.

그러던 차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들 다섯 중 가장 똑똑하고 진취적인 자식이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부모를 도와 일도 많이 했다. 무엇이든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 가버리면 어쩌나, 집안을 일으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의 진지한 선택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미련을 접지 못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제가 다시 돌아올 거란 미련이 있으셨어요. 친구들도 제가 워낙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출가생활을 몇 년 정도 거쳐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나갈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와서 살아보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불교의 어떤 것에 매료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학식도 높고 매사 열정적이고 법문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셨어요. 남자로서 가볼만 한 길이라는 생각을 했죠. 〈열반경〉을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부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황금빛 옷을 입고 멀리 앉아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피곤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노스님으로 비춰졌어요. 보통의 출가수행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부분이 출가에 대한 가장 큰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동국대 불교대학서 수학한 아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출가
돌아올 것 믿었지만 '스님' 선택
암 발병한 50살 아들 스님 간호
"어머니 지켜보니 잘 살아야죠"

돌아오면 좋겠다던 어머니가 미련을 완전히 접은 것은 해인승가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수덕사로 출가한 아들에게 가끔 연락을 하면서 '한 3년 살았으니 나와도 되지 않느냐' 고 넌지시 물었다. 친척 중에도 5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다거나 셋째 며느리 얻고 싶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머니에게 아들 스님은 출가 5년째 되던 해에 안부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전국 사찰마다 전화를 해서 아들이 해인사 강원에 들어간 것을 알아내곤 다른 아들들과 함께 찾아왔다. 아들 스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공양간으로 가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다행히 그날따라 두부조림에 표고버섯을 볶은 나물까지 반찬이 풍성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 어머니 왜 우세요?"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출가시켜놨는데 멸치 대가리 하나 없이 이런 풀만 먹고 사는 것을 보고 엄마 속이 편하겠니?"

아들 스님이 내친김에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께 쐐기를 박았다.

"제게 오늘 이 반찬은 고기보다 더 좋은 반찬입니다. 이제 제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앞으로 연락도 드리고 찾아도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출가 생활을 존중해주었고 가족 모두 신심이 두터워지는 데 일조하셨다. 출가하려면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라던 아버지가 법당에 들어와 절을 하고 어른 스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만큼 신심이 깊어진 것도 어머니의 힘이었다.

30대 후반, 서산 부석사 주지를 할 때다. 아들이 주지를 하니 마음 놓고 며칠씩 묵다 가시곤 했다. 신도들이 주지 스님 어머니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을 전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절 일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그냥 들어줄 아들 스님이 아니었다.

"신도로 오려면 절에 오시고 주지 어머니로 계시면서 잔소리하실 것 같으면 다른 절에 다니세요. 더 이상 절 일에 관여하시면 저 주지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뜻을 헤아리는 현명한 분이었다. 그 뒤론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 절에 오면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는 일이 전부였다. 신도들이 '우리 스님이 바르게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는 소리를 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더 하심을 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며느리 하나 얻지 못한 것 말고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수행자가 된 아들이 만족하다던 어머니였으나 10년 전, 아들 스님이 암수술을 받았을 때는 망연자실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냐면서 연일 눈물을 훔치셨다. 몸에 좋은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먹였다. 자식이 아플 때 자식보다 더 마음이 아픈 존재가 어머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 목숨을 열 개라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 한창 나이의 아들이 병고를 만났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것이다.

"그때 적어도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몸이 아파도 이렇게 걱정이 태산인데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치료에 더 전념하게 되고, 치료되고 나서도 건강관리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쉰 살에 맞은 암의 발병은 출가인생에 새롭게 발심하는 큰 전환기가 됐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 몇 벌 남겨놓고 다 정리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스님, 왜 그렇게 다 치우십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잡다하게 쌓아놓았던 것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짐 정리하는 아들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어머니는 구십이 가까운 지금도 일 년에 한두 번 아들 스님을 찾아와 건강을 챙겨주고 돌아가신다.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출가했고,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데 잘 살아야죠."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존재는 승속이 따로 없는 것 같다.

단순 명쾌함으로 오늘은 사는 스님의 내일이 궁금하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승불교서 정법은 곧 보살행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⑩ 정법과 바라밀

"세존이시여,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나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정법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이란 곧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밀과도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과도 다르지 아니하니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돌보아 줄 사람에게는 보시로써 돌보아주면서 몸과 팔, 다리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저들의 뜻을 보호하여 돌보아줌으로 중생들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바라밀이라 합니다. 마땅히 계로써 돌볼 사람에게는 육근을 지키게 하여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과 뜻으로 하는 것 등 삼업(三業)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앉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네 가지 위의를 바르게 하여 저들의 뜻을 지켜 돌보아주면 성숙된 중생들이 정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인욕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만약 저 중생들이 꾸짖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에도 화내지 않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크게 참는 힘으로써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그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되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 합니다.

마땅히 정진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저 중생들에게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가장 훌륭한 정진과 각가지 행동으로써 그들의 뜻을 보호하여 성숙되게 해 줍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정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선정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저들 중생에게 산란하지 않는 마음과 밖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가장 올바른 생각과 나아가 오랫동안 해 온 일과 오랫동안 설해온 바를 끝내 잊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성숙되게 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마땅히 지혜로써 돌보아야 줄 사람에게는 저들이 묻는 일체의 이치를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써 일체의 논의와 일체의 기교, 그리고 궁극적인 이치에 나아가 갖가지 방편으로써 모든 것을 연설하여 저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바라밀이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바라밀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법이며 동시에 이것이 바라밀로 통한다는 대승의 근본을 밝히고 있다. 정법섭수와 바라밀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육바라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법이 무엇인가? 혹은 수행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 중생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을 성숙시켜 준다는 것이다. 매우 간명하면서도 명쾌한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승에 있어서의 정법은 곧 보살행으로 귀착된다는 말이다.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마음 바라밀다의 완덕을 갖추고 있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숙된 중생은 다시 정법을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불교를 복귀사상(復歸思想)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래의 참 마음, 순수한 그 자리도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요 이것이 곧 깨달음 자체의 마음 곧 보리심이라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히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행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고향에 돌아가는 것에 비유해 말하기도 한다.

한 번 본래의 마음자리(心王) 잃어버리고(一從違背本心王)

몇 번이나 삼악도에 들어가고 사생(四生)을 겪었던가?(幾入三途歷四生)

오늘 번뇌의 오염을 씻어 없애니(今日滌除煩惱染)

인연 따라 예전대로 고향에 돌아가네(隨緣依舊自還鄕)

영가법문에도 가끔 설해주는 게송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반드시 대비심 토대 둔 서원 함양을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㉝ 서원의 중요성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바탕을 둔 발보리심은 관음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신앙에서 신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음신앙을 신행하려면 맨 처음 일체중생을 섭수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력의 서원을 믿고 함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때의 서원은 개인의 욕망이나 자아를 충족하려는 발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중생을 일체의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대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기필코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는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관음보살의 중생구제 발보리심
관음신앙과 대승불교 신행 근본

불자 여러분! 성불을 위한 보살이 맨 처음 일으키는 대비서원(大悲誓願)은 많은 경론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전문학이라고 불리는 〈본생경〉에서는, 석가세존의 전신이었던 수행자 보살이 연등불을 비롯한 스물 네 분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10바라밀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 성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부파불교 문헌인 〈구사론〉에서도 석가세존의 전신 보살이 서원을 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이 눈멀고 어두운 세계에 있으면서, 반드시 정등각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구원해 주는 이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고, 안목이 되어 주고,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처럼 석가세존의 전신 보살은 정등각을 얻어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사론〉의 '분별세품'에서는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서원'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살은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정진하고 수행하여야 비로소 부처의 과위를 얻을 수 있는가? 어찌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랴! 위없는 보리는 매우 얻기가 어려워, 많은 원력과 수행이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은 반드시 3무수겁을 지내면서 큰 복덕과 지혜와 자량과 육바라밀과 수없이 많은 고행을 닦아야 비로소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랫동안 원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정각을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서원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경론에서 서원을 전거(典據)하는 내용을 보았듯이 '서원'은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각을 얻어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심에 바탕을 둔 서원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대비심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대비심에 토대를 둔 서원을 반드시 함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⑩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물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 씻어내야

수행승들이여, 여기 더렵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그것을 청색, 노랑색, 빨강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여지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더렵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부처님은 마음의 더러움에 대하여 오염된 옷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을 가진 생명체가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온이 있는 존재는 이 말씀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비단, 이 현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이다.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자. 만약 수행을 닦고, 버리고, 숨고, 만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삼는다면 평생을 수행한들 수고롭기만 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수박을 앞에 놓고 수박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수박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쪼개야 한다. 그리고 맛을 보고 수박의 달콤한 맛을 알아야 다음에 잘 쪼개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쪼개는 것이, 끊어짐 속에서 언어의 깊이를 아는 것과 같다. 언어의 깊이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언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을 삼가게 된다.

욕심, 탐욕, 악의, 성냄, 원한, 저주, 격분, 거짓된 행위, 질투, 인색, 고집, 선입견, 자만, 오만, 교만, 방일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마음의 더러움을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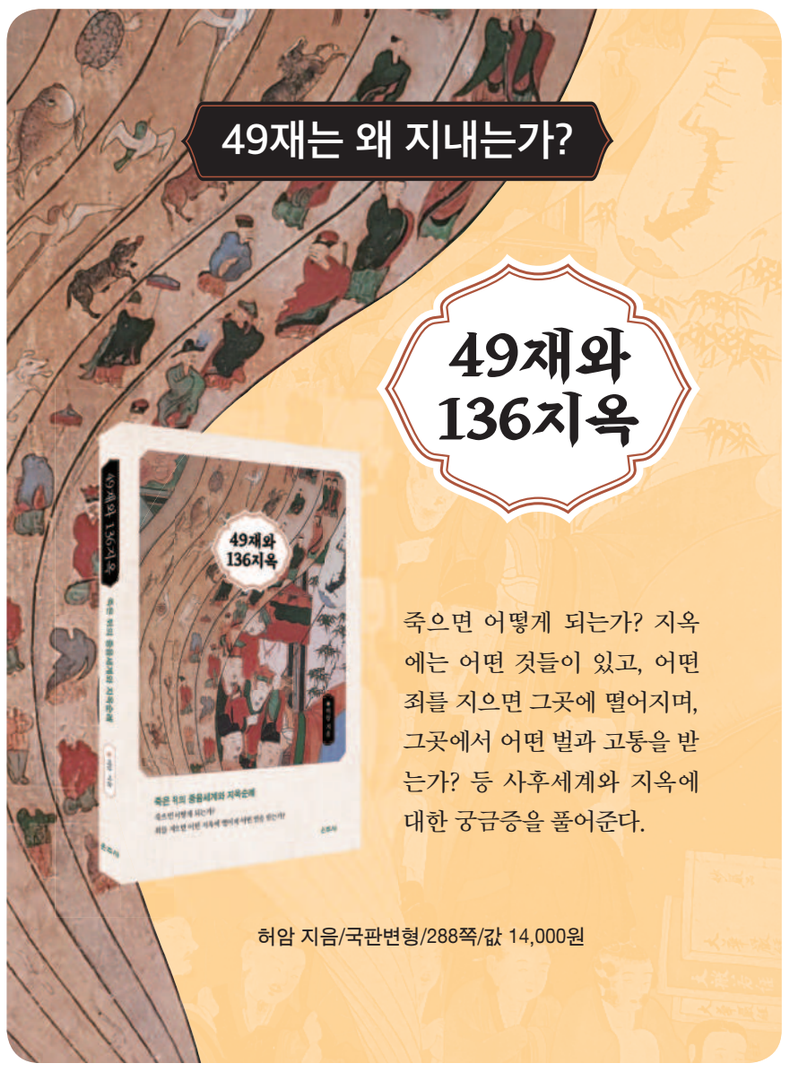
마음의 오염을 버린다는 것은 물건을 버리듯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일어나는 곳이 나의 집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마음의 오염을 오염이라고 알아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바른 수호를 가질 때, 오염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바르게 보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돌면서 내가 아닌 나에게 한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세움 없이 버릴 수 있다면 가르침이 바르게 수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상의 오염에 물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은, 구하고, 기도하고, 천도를 기원하며 좋은 곳에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러한 태어남은 금을 버리고 구리를 금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기루 같은 삶이다. 마음의 더러움은 실재하는 더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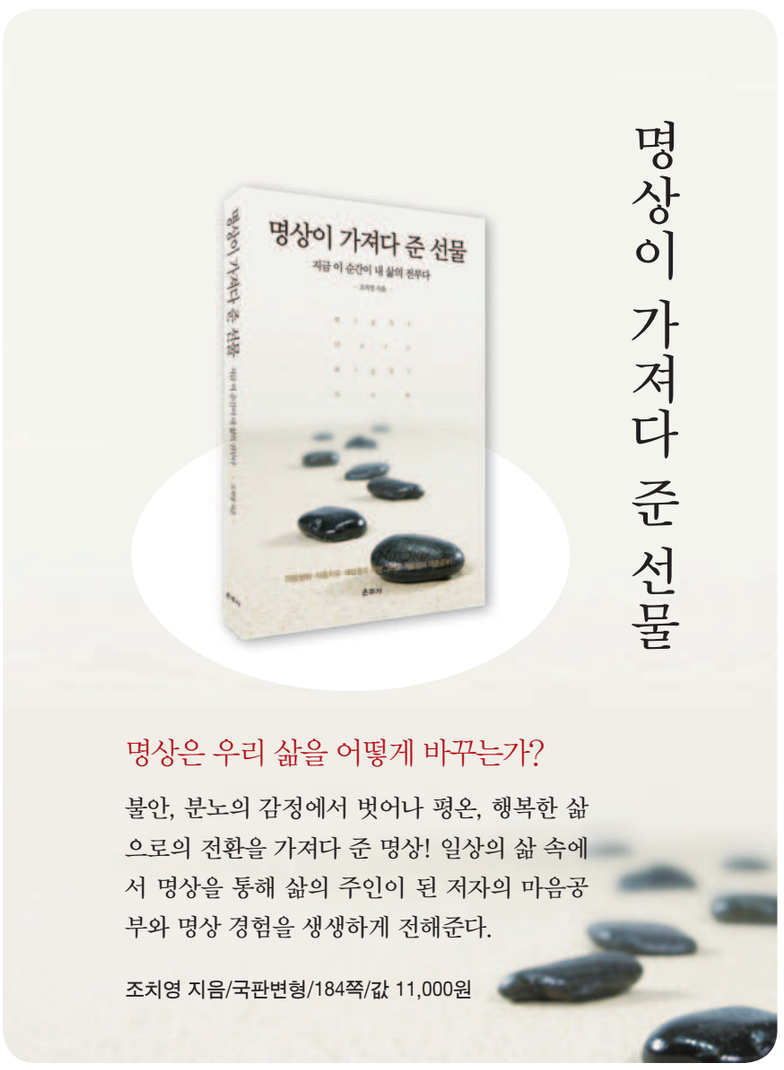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빠져 들어가 결국 전신이 완전히 늪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꼴이다. '나'라는 주체를 행위자로 놓고 수행을 하면 늪에 빠지게 되지만, 나라는 주체를 알고 있는 주인공으로 두고 본다면, 행위의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마음의 더러움을 버린다'의 참된 의미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것은 버려져 사라진 것이다. 오온에게 이익과 손실이 없을 때는 이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가도, 약간의 이해득실이 일어나게 되면 찰나에 '나'라는 주체를 행위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우리의 본질이 깨끗한 천과 같기에 이런 계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는 본질에 닿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더 이상 오염된 마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 부처님은 선정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다. 선정의 힘은 물들어 있는 마음의 오염에서 기인하는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평정심을 돋우어 선택하는 자 없는 선택을 돕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9호 | 17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주지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역사깊음. 중창주 스님이 30~50대의 주지 자리를 물려줄 상좌가 없음. 단, 조계종 소속의 비구스님을 찾고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경북 예천 소백산 내원암

010-6353-1180, 054-653-1180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010-5049-1533

비구니 기도스님,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작은암자

010-4569-3722

공양주, 부전 할분
일할분, 쓸분 상담
서울 경기지역 환영
포교원 양도·양수·창업
서울명동 직업소개
남여 결혼할분 모십니다.

010-5381-1419

❊❊❊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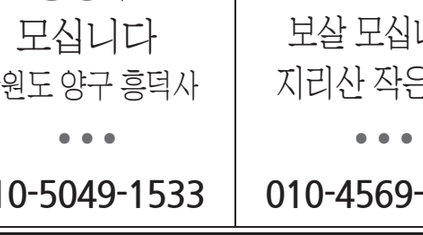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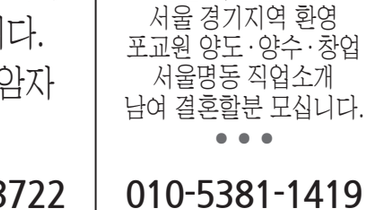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9호 | 18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맺습니다.

010-4180-178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급) 안 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2883-2255
010-5223-3705

절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 면적 : 총680평
- 건평 : 50평
- 가액 : 6억8천만원

010-2315-72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명지하철역 5분거리
- 3층 / 48평, 엘리베이터, 법당, 방2, 주방, 삼존불, 주차장
- 보증금3천 / 시설비1천(절충가능) / 월세75만
-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

010-8551-43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찰안내 가람

- 강원 동해 사찰(법당 : 목구조)
- 부지 총면적 : 1170㎡(353평)
- 건물 총면적 : 211㎡(64평)
- 가액 : 6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 터 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 산 1,6000 평, 평당 1십만원
- 산 밑에 대지가 있는데 그곳도 별도로 금액은 상담후 양수가능합니다.
-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산에 돌이 많고 경치가 좋습니다
- 자세한것은 문의전화 바랍니다

010-4204-106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9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2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설치, 음향완비, 도배)
- 5년전 인수금액보다 3백만 절상

보문산 약사도량 지장사
010-3049-581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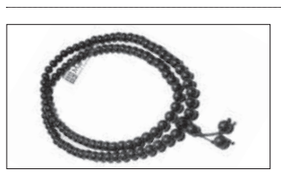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⑤ 절기에 어울리는 차

절기 맞는 약차 심신 균형 잡아줘

절기란 우주의 생장과 사멸이 진행되는 순환의 원리로, 대우주의 기온, 햇빛, 습도,공기, 바람에 따른 변화이다.

대우주 가운데 소우주인 사람의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기의 변화를 따라가는데, 이러한 절기의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 몸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다.

식물은 계절별로 그 특성과 약성이 다르다. 봄에 잔설을 헤치고 나온 식물의 새싹은 인체에 기를 불어넣는데 큰 효과가 있다. 여름 식물들은 잎이 푸르고 힘이 있어 그 영양분이 피를 맑게 해주고, 인체의체(體)에 해당하는 가을 열매는 혈기를 북돋아준다.

또한 인체의 정(精)에해당하는 겨울 식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뿌리만으로 추위를 견디기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

계절별로 식물의 특징과 몸에서 필요로 하 영양분이다르므로 제철 재료로 차를 만드는것이중요하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몸이 외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기 쉽다. 이럴 때 따뜻한 차를수시로마시면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움츠린 몸에 영양을 공급해 활기를 불어넣는다. 절기에 맞는 다양한 약차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각 계절에 어울리는 차를 살펴본다.


여름철에 좋은 개똥쑥차.

△봄 – 기운을 북돋는 차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생명활동을 위해 시동을 거는 시기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몸에 풍기가 많이 돌며, 많은 에너지(양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지며 춘곤증을 느끼게 된다. 이 시기에 몸에 필요한 것은 새싹의 에너지인 목(木)의 기운이다. 그래서 봄에는 특히 잎차나 순차를 마시면좋다.

녹차, 매화차, 목련꽃차, 솔잎차, 냉이차, 생강나무꽃차, 당귀순차, 오가피순차, 엄나 무순차, 감잎차, 뽕잎차, 홑잎차, 찔레꽃차, 단풍잎차, 은행잎차, 다래순차, 칡차, 겹 황매화차 등

△여름 – 태양의 건강한 에너지를 담은 차

화火의 기운으로 무덥고 습하며, 생명을 성장시키기위해태양의 에너지가 강한 절기이다. 땀으로 수분이 과다 배출되어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쉬우며 속은 냉해지고 피부는 차가워진다. 몸속의 열을 가라앉히고 몸의 열기를 풀어주는 데는 특히 꽃차가 도움이 된다.

깻잎차, 수박차, 환삼덩굴차, 도차, 연잎차, 박하차, 어성초차, 아카시아 꽃차, 비트차, 야관문차, 부추차, 개똥쑥차, 표고버섯차, 둥굴레꽃차, 개망초차, 옥수수수염차, 질경이차, 민들레차, 수국차, 불두화차 등

△가을 – 수채화처럼 맑은 차

금(金)의 기운으로 쌀쌀하고 매서운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의 몸도 겨울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기이므로 가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시기에 열매차와 뿌리차를 만들며 긴 겨울철 영양을 위해 잎차도 준비 한다.

국화차, 여주차, 우엉차, 돼지 감자차, 호박차, 연근차, 맨드라미꽃차, 초석잠차, 도라 지차, 백년초차, 무차, 더덕차, 칡차, 구기자차, 하수오차, 황기차, 두충차, 모과차, 둥 굴레차, 백출차, 천궁차 등

△겨울 – 몸에 기를 불어넣는 차

수(水)의 기운이 강한 겨울은 모든 생명에게 고통과 시련의절기이다. 곰이 겨울잠을자듯이 인체는절전모드로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하여 모공을 닫고 에너지 소비를줄인다. 몸을따뜻하게해주는차가절대적으로필요한시기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양한 약재로 만든 한방차와 뿌리차가 특히 좋다. 쌍화차, 감초차, 보이차, 유자단, 유자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우슬차, 당귀차, 겨우살이차, 귤피차, 팥차 등

차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차를 만드는 과정을 '제다(製茶)' 라고 한다. 차를 만들기에 앞서 재료에 대해 살펴보자. 아울러 차의 약성을 높여 더욱 효과적으로음미하는방법도 알아두자. 차는 자연에서 자란 순수 유기농 식물을채취해서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모든 식물은 렉틴(lectin)이라는 물질을품고있다. 바이러스에서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렉틴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독성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조리해서 먹는다.

그런데 차는 법제 과정에서 다른 음식보다 렉틴으로부터 안전하며, 우리 몸에 영양분이 가장 잘 흡수될 수있는 상태로 변화된다. 좋은차의 기준이 되는 것은색(色), 향(香), 미(味)라는 3가지 요소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다. 차의 색에 대해 말하자면 청취색이 제일좋고, 남백색이 다음이며, 황색 등은품(品)에 들 수 없다. 차의 맛은 달고 부드러운 것을 상품으로, 씁쓰레한 것을 하품으로 여긴다. 차는 저마다 고유의 향을 지니므로 다른 향을 섞으면 좋지 않다.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차의 향을 먼저 음미한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⑤ 소금별 지구와 소금 인간

소금 없이 살 수 없는 인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떤 별일까? 지구는 바다가 있어 다른 별과 구별이 된다. 뜨거운 태양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태양계에 있는 수성, 화성, 목성, 토성에는 바다가 없다. 인접한 달에도 물론 없다. 바다가 있는 지구는 그래서 다른 별과 다르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는 물이 많은 별, 바닷물이 있는 별, 즉 수성(水星)으로도 불린다. 그렇게 바다가 있으므로 해서 태양계 다른 행성과 구별이 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 강이나 호수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97%의 물은 바닷물이고, 2%로는 북극, 남극의 빙하상태로 되어 있는 얼음이고, 나머지 1%가 강이나 지하수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마음 놓고 먹거나 농사,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물 중 바닷물이 97% 차지해
바닷물 모두 증발한다면 지구는 '소금별'
물 · 공기처럼 좋은 소금 섭취가 중요해

바다와 육지의 면적, 깊이

구분	동해	남해	서해	바다 전체	육지
면적	1,007,600 km^2	75,400 km^2	404,000 km^2	361,100,100 km^2	149,000,000 km^2
평균 수심	1,684m	101m	44m	4,796m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은 바닷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무려 97%가 바닷물이다. 바닷물이 강이나 지하수와 다른 점은 소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바다에는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 있을까?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켜서 소금만 남긴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자. 전체 바다의 평균 깊이는 4796m. 바닷물에서 소금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을 하면 4796m ×0.034=163m가 된다. 물이 모두 증발하면 바다가 있던 곳에 높이 163m 두께로 소금이 덮이게 된다는 뜻이다. 163m 두께의 소금,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로 계산을 하면 무려 55층 높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바다가 지구 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1% 정도 된다. 단순 계산을 하면 지구 전체로는 115m 두께로 소금이 쌓인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 땅속에는 암염이라는 형태로 수십조톤(t)의 소금이 묻혀 있다. 이것을 모두 계산을 하면 지구는 약 130m 이상의 두꺼운 소금으로 덮인 '소금별' 임을 알 수 있다. 한 층을 3m로 계산을 한 아파트 층으로는 43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

전체가 130m 이상의 소금으로 덮여 있는 지구는 바로 소금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소금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금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소금 속에서 소금을 원료로 생명의 싹을 틔우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 소금을 먹으며 생명을 키워나가는 우리는 소금별에 사는 소금 인간일 수밖에 없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 이라는 말이 있다. 지구 전체가 소금으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소금을 벗어난 생명, 벗어난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뛰어봤자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0.9%로의 소금물인 양수 속에서 생명을 시작한다. 엄마의 뱃속에 만들어진 작은 바다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날 엄마는 바다에서 자란 미역국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한다. 생일날마다 먹는 미역국은 다름 아닌 우리 생명 탄생의 고향인 바다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소금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소금을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좋은 소금을 선택하여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공기를 마시려는 노력, 좋은 물을 마시려는 노력 이상으로 소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소금별에 사는 소금 인간이기 때문이다.

〈(주)오씨아드 이사〉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 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❸ 임종 다섯 단계와 불교 십이연기



▶한줄요약
중생들의 막연한 욕망 작동 근원이 무명이며, 이 무명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고, 종국에는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 낸다.

죽음이 공포스러운 이유 '무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통해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다. 타인의 죽음기사는 우리 삶에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이며 그저 무심하게 넘겨지는 한 장의 기사 거리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어떨까.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죽음에 이를 때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까?

현대 죽음학에서 죽음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의 '인간 임종의 다섯 단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타임〉지의 '20세기 100대 사상가'에 선정되기도 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1926년 스위스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세에 폴란드의 마이데넥 유대인 수용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당시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이 수용소 벽면에 그려놓은 수많은 나비를 목격했다고 한다. 퀴블러로스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정신치료에 투신했다. 평생을 죽어가는 인간들을 관찰한 퀴블러로스는 인간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서,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에서 임종에서 사망까지를 5단계로 나누어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否定, denial)이다. 부정은 '인정할 수 없음'의 뜻으로,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이 1개월 후에 사망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심리상태이다.

나는 정말 죽는 것일까. 왜 이런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등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부인하는 단계이다. 환자는 의사의 오진을 의심하고 다른 병원을 찾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꿈같은 일인 것이다. 부정과 충격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환자는 고독감, 내적 혼란, 죄의식, 삶의 의미 상실 등 다양한 심리상태를 경험한다.

부정의 심리가 사그라들면 두 번째로 분노(Anger)의 단계로 진입한다. 분노는 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표현된다. 피를 토하거나, 항암 치료로 인해 탈모가 일어나거나 체력이 감퇴하는 등 병증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불안해한다. 불안감과 심신의 고통은 가족, 의사 심지어 신 같은 존재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한다. 자신이 죽어야하는 영문을 이해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해가는 자신과는 달리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죽음은 결국 자기만의 것이고 쇠락해가는 몸뚱이는 오직 자신의 몸뿐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환자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퀴블러로스는 분노의 단계가 가족과 의료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단계라고 말한다. 환자의 부정적인 정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타협(Bargaining)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상태이며 환자는 자신의 현실을 수긍하려고 노력한다. 삶이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고 병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짜증만 내던 가족에게도 미안해 한다.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기도를 통해 기적이라도 일어나 오래 살기를 바라는 단계이기도 하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는 의학계에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지 않을까,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지 않을까, 신의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등 최후까지 어떤 형태로는 희망을 품는다.

생명 연장의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 네 번째 단계인 우울(Depression)에 이른다. 여기에서의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수준이 아니다. 우울한 기분의 지속, 의욕과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자살 충동, 무기력감이 거의 매일 온종일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러한 심리상태는 우울증 환자가 겪는 것과 유사하다. 우울증은 정신활동과 신체활동의 저하까지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이다. 퀴블러로스는 우울단계에는 저조반응과 준비반응의 2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한다. 저조반응은 체력 감퇴, 식욕 저하, 자립능력 저하 등 심신의 여러 반응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뜻한다. 준비반응은 자신의 생명력이 저하됨을 감지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과 친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등 죽음을 준비하는 반응이다. 비로소 이 단계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 죽음의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수용(Acceptance)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삶이 끝나감을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죽음을 받아들

12연기 속 죽음 인식 내포
생사의 고통 여의는 과정
실생활에서 체화해 나가야

이는 단계이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타인과의 교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퀴블러로스는 수용의 단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상태이다. 이 경우 환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둘째,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환자는 더 이상 희망도 갖지 않고 몸부림도 치지 않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힘들어하며 죽음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뿐이다.

세번째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들 대부분은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죽음도 자연 현상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죽음학에서 다루는 임종 과정은 주로 죽음에 임박 했을 때를 시점으로 삼지만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같은 탄생, 살아감, 죽음에 이르는 총체적 과정의 죽음 혹은 십이연기처럼 무명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통해 죽음을 다룬다. 〈중아함경〉 '사리자상응품(舍梨子相應品)'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어남이란, 여러 중생들이 오온(몸과 정신)을 획득하고 명근(命根: 수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을 남(生)이라 말한다. 늙음이란, 여러 중생들이 노쇠해져 머리는 희어지고, 이는 빠지고, 허리는 굽고, 몸은 무겁고, 피부는 늘어져 모든 감각기관들도 다 낡아 얼굴빛도 추해진 것, 이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병이란 두통, 눈병, 귓병, 잇병, 천식 등이다. 죽음이란 여러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어 수명이 다하고, 명근(命根)이 닫힌 것이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인용문에 따르면, 태어남(生)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 '오온(五蘊)'을 갖추고 명근(命根), 즉 목숨을 얻게 되며, 이후에는 모든 감각기관들이 낡아져 감에 따라 늙음(老)이 진행되고 신체기관들이 망가지는 병(病)이 찾아들며, 결국에는 신체가 손상되고 목숨이 다하는 죽음(死)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생로병사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어떤 상세함이나 불교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 두가지 연기적 단계, '십이연기(十二緣起)'는 인간이 죽음의 죽음 과정에 대한 불교만의 특별함과 구체성이 드러난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명(無明, avijjā)이 있을 때 행(行, saṅkhāra)이 있고, 행이 있을 때 식(識, viññāṇa)이 있고, 식이 있을 때 명색(名色, nāma-rūpa)이 있고, 명색이 있을 때 육처(六處, saḷāyatana)가 있고, 육처가 있을 때 촉(觸, phassa)가 있고 촉이 있을 때 수(受, vedanā)가 있고, 수가 있을 때 애(愛, taṇhā)가 있고, 애가 있을 때 취(取, upādāna)가 있고, 취가 있을 때 유(有, bhāva)가 있고, 유가 있을 때 생(生, jāti)이 있고, 생이 있을 때 노사(老死, jarā-maraṇa), 근심, 고통, 슬픔이 있다.

십이연기는 열 두가지의 요소들이 각각 연기적 관계, 다시 말해 '원인', '결과', '조건'의 틀 속에서 얽혀있는 속성을 가진다. 무명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관찰하는 것을 순관(順觀, anuloma), 죽음이란 최종 결과에서 무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관(逆觀, paṭloma)이라 하는데 실제로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관찰했던 방법은 역관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붓다의 출가 동기는 깨달음이 아니라 사문유관을 통한 생로병사의 관찰이었기 때문이다.

무명(無明, avijjā)은 '밝지[明] 않음'으로 쉽게 말해 어리석음, 무지를 뜻하지만 이는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근원적이며 원초적인 무지'를 의미한다. 무명은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에 무지함이며, 탐욕, 분노 등 중생의 본능과 욕망을 발산시키는 근본 번뇌이자 모든 집착과 번뇌의 근원이다. 무명은 중생에게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며 종국에는 태어남과 죽음을 발생시키는 태초의 원인이다. 십이연기는 무명에서 출발해, 잠재력의 발동(행), 의식, 감각기관, 대상의 접촉(식+ 명색+육입→촉)에 의해 일어난 즐거움, 괴로움 등의 정서 작용(수), 이후 욕망에 근거한(애) 집착(취), 집착으로 인한 존재의 획득(유), 존재의 발생 이후 태어남, 죽음이라는 과정을 밝혀낸다. 결국 십이연기 교설의 목적은 죽음이라는 결과가 일련의 요소들이 원인과 결과로 얽혀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 dependent-origination)적으로 발생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사실 십이연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며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이견이 많다. 궁극적으로 십이연기는 붓다가 수행을 통해 온몸으로 체험하며 밝혀낸 '경험적 실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십이연기를 통해 죽음 과정을 탐구하는 의의는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죽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생사)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죽음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무명'이 그 근원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죽음의 해결이 '무명'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낸 것이다. 무명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그 실체가 없으며 '마음의 영역'에 있다. 중생들의 막연한, 자동적인, 욕구와 욕망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무명이며, 이 무명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고, 종국에는 죽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죽음을 탄생처럼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음을 고통과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무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천도도 집안 살림 잘해야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큰스님 그거야 그렇죠.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구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울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나 들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간신앙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 이 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다, 또는 점쟁이가 궁합을 보러 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일진이 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궁합을 볼 게 아니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궁합이지 무슨 궁합을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날짜에 궁합이 붙고 윤회에 궁합이 붙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북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에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는,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아,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다가 그냥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밑이든 물이 질척하든, 그 자리를 파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좌우를 봐서 '야, 이거는 참 좋겠구나. 볕이 들고 아래로 물이 흐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게 참 좋구나. 앞은 산에 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옆으로는 둘러싸여 울타리가 지고, 참 좋구나.' 이런 거뿐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그 용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 그 풍수하는 사람들, 뭐, 역학 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떼로 죽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가 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리고 구랑신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허, 구랑신이 들기는 무슨 구랑신이 들어? 내 마음이 구랑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구랑신이 따로 있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자꾸 재밌어서 쫓아가고 허, 귀신이 오는 거를 그냥 탁 집어서 집어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지. 하하하.

산골이나 밤중이나 그믐밤에 가다 보면 누구든지 꼭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허, 그런데 저는요, 깊은 산속, 그 수십 리 밖의 산골이라도 늠름했던 것은 뭐냐.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십 리 안팎으로 모두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말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걷다가도 낭떠러지가 되면 '아이구,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하다못해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다니는 뱀도 도와주고 그냥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는 건 둘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나올까 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 봐 겁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며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 또 공양도 제공하고 말입니다. 하하하. 무슨 공양이냐구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라' 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 영락없이 새끼오락지에 북어 하나가 꿰여 있어요. 하하하.

그 북어 꼬랑지를 잡고 턱턱 돌로다가 쳐서 옆구리에다가 쓱 끼고선 이제 가는 거죠, 또. 그러면 산신 모시는 산당이 있죠? 그런 데로 들어가죠. 거기에 위패도 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오룡 기와집 같아요. 또 상 차려 놓은 널빤지에 단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위패를 베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상천지가 전부 내 자리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도 내가 좋았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큰 집에서 자고 하면서도 지나가다가 다리 밑 구멍만 봐도요, '어휴, 저기서도 잘 만한데….' 하하하. 습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움막이나 창고라든가 뭐, 짚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도 살 만한데.' 이래요.

여기 삼막사 올라가는 데 저 위로 빈 움막집이 있는데 '저긴 저렇게 살 만한데 왜 비워 놨을까?' 아, 이러다가 한편 '참, 습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큰 집은 생각을 안 하고요, 꼭 그런 것만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무척 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도 못 합니다. 깡통을 들고 얻어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상황에서 '너 깡통 들고 얻어와라.' 하면 못 얻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농후하게 배었어요. 또 그 하꼬 구루마 끌고 가는 걸 보면요, '아이고, 비가 와도 저기서 그냥 자도 되겠고, 저기서 끓여 먹어도 되겠고 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허허허. 그러니 글쎄,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냥 빙긋이 웃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습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났든 못났든, 작든 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집을 잘 단속하고 썩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여러분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참사람이라고 봅니다. 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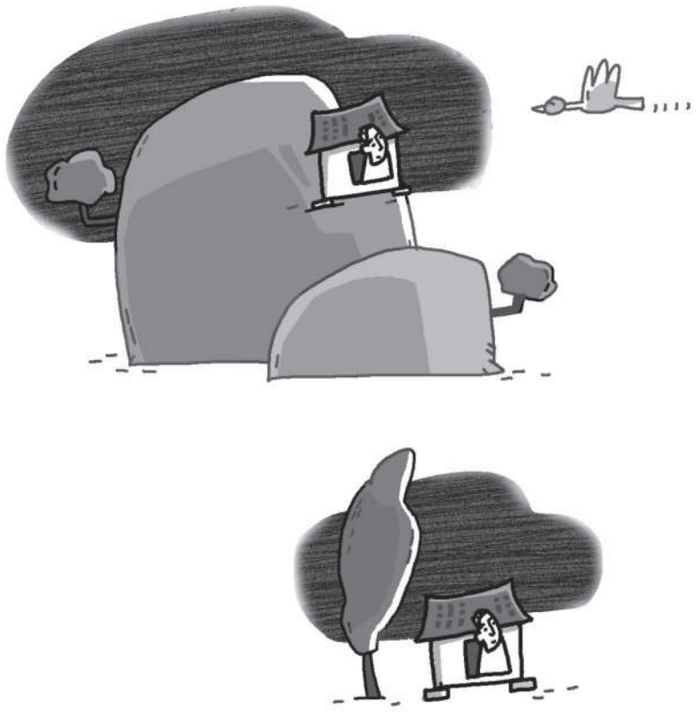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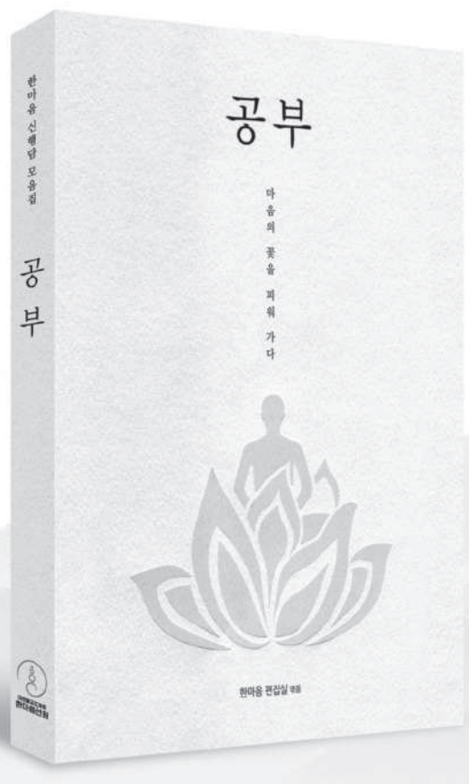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큰스님 제대로나 대답을 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자1(남) 아닙니다. 궁합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육도윤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생활 가운데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스님 아까 말해 놓고 또 딴말하시네요. 그거 증명할 수가 있죠, 허허허.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전체를 알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육도윤회에 끄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른 거죠. '그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가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마음 턱 놓고, 그 사람 집과 양면 모두, 신랑 색시 모두 그 마음을 잘 봐서, 그냥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맞는 겁니다.

또 현재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이 땅이 좁아서 산이든지 땅이든지 어느 때에 묘지를 파가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탑으로 하나만 딱 해 놓고 그냥 세세생생에, 삼대(三代)가 다 들어가고 사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해 놓는다면, 아주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 아무 데나 내가 좋다 하는 자리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법입니다.

참법은 그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귀신 하나도 범접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저 부처든 중생이든 귀신이든 뭐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불바퀴에다가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니까 타 버리더라고도 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 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릿떠릿하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자1(남) 또 있습니다.

큰스님 네. 하하하. 오늘 재밌네요.

질문자1(남) 오늘 윤회 얘기가 나온 김에 아주, 의문이 나는 점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스님 그런 것 같애요. 하하하.

질문자1(남)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질문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죠, 뭐. 그대로! 그대로 바로 우리가…, 뭐라고 물었죠?

질문자1(남) 불가에서는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한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돌아가지 않는다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놨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느니 한마음이니, 왜 그랬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공!' 하면 바로 고정됨이 없이…, 『반야심경』에도 '공했다, 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이끌어 가는 영원! 자기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하여튼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차안에서 넘지 못하든 넘든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얽매여서 수없이 그렇게 끝없이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리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저 어느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세생생에 그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뀌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냥 긍정적으로 '잘한 것도 너고 못한 것도 너니까.' 하고 그냥 놓고 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입력으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다 없어짐으로써 새 입력을 넣는 대로 또 나오니까 우리가 살 만하죠. 살 만한 겁니다, 진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아주 만가지 맛이 나면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신다면 나를 만날 때, 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고선 그냥 똥줄이 빠지게 가세요, 그냥. '이러이러합니다' 이런다면 그 마음과 이 마음이 그냥 동시에 붙어서 불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 줄을 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면 그냥 망가지고 말아 버려요, 오히려 그냥!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부여잡고는 집을 살려 달라느니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느니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켓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딱 끼워 놓곤 그냥 그냥 가시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원주에서 서울로 오려고 차를 타고 오다가 막 내리는데, 손이 갈라지고 문둥 환자처럼 더더기가 붙고 한 어떤 사람이 "이런 병이 들어서, 내쫓긴 거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문둥 환자 사는 데로 가라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차를 막아서서 가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막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나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찰나에 자꾸 바뀌니까. 그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 달래요. "알았다." 하니까 그때서야 가요. '그거 참 이상하다. 알았다고 한마디 들으려고 저렇게…. 저 사람네들이 나의 뭘 보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았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와서 그렇게 길을 막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내 꼬락서니를 보고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믿고 그 말을 듣고 가네.' 이러고선 그냥 돌아서서 왔어요.

며칠 서울에서 지내고 상원사엘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서울을 오게 되었는데, 누가 두 팔을 벌리면서 날아오듯이 그냥 차로 달려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누가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짱하게 나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해 준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기가 낫게 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고개가 안 돌아가는데 절을 아주 그냥 공손하게 삼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휴! 저렇게 젊은 남자가 나의 뭘 보고 삼배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스 타고 돌아가다가 그게 나았대요. 허허허.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본인들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로 하심하고, 진짜로 돌을 보고도 정성을 들이고, 저 형상 부처님을 보고도 막 살려 달라고 애를 쓰는 판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보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하하.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산 사람을 귀중하게 안다면 저 형상적인 부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한 손으로 꿰들었다는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또 하세요.

질문자1(남) 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뭐, 비슷한 질문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하셔도 좋아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깐요.

질문자1(남) 거의 모든 종교가 윤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장생불로(長生不老)에 있다고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뭐. 도교가 뭐, 다른 겁니까? 도란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찾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자기 모습을 없애려면 없애고, 또 모습을 나타냈다가 없애려면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법이구요.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나를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 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거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고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하나로 묶어서 삼배를 하든지, 또는 하나로 부처님한테 묶어 놓고 삼배를 하고 다시금 자기한테 하나로 끌어 묶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고요. 또요?

질문자1(남) 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 왜 그만하십니까? 하하하.

질문자1(남)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생활을 그냥 하는 게 그대로 찰나찰나 윤회가 되는 것이고,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게 이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공했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이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 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릿떠릿하고 바람 부는 대로 쓸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2학년도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동화사 승가대학

■ **모집대상** : 사미스님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4**월 **3**일까지
■ **특　　전** : 1) 월 보시금 및 소임비 지급
2) 성운대학교 사회복지과 수학 지원 (학기당 장학금 지급)
3) 해외 성지순례(사집반, 대교반)
4) 모든 신입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급
5) 전 강의실 에어컨 완비 및 책·걸상 구비
6) 주 2회 병원 외출 허용 (+ 대구 시내 접근성 편리)
7) 주 1회 체육운력 시행
■ **문　　의** : 승가대학 : 053)980-7925
학감 여운스님: 010-7626-5558

※ 타 종단 스님 수강 가능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스님도 가능)

동화사승가대학장 **중인**

율학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전문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모집인원** : 개방형 00명, 상주형 00명
■ **자　　격** : 1) 기본교육기관은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한 자.
2) 불기2566(2022)년도 봄 비구계 수계예정자.
3) 타종단스님도 수강 가능(통학)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율원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 **등 록 금** : 1학기당 400,000원(개방형 전문반 학인에 한함)
※ 사중거주 학인은 등록금 면제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3**월 **18**일까지(추후 개별 공지함)
갈마 면접 : 3월 23일 오전10시 비로전
■ **신청방법** : 율학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980-7955, 7983 율감 010-5665-5010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대학원장 **현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스님 : 비구, 비구니(타종단 스님 수강 가능)
재가자 : 5계를 수지한 신도
■ **학　　제**
1) 학　　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년 2회 2박3일 특강
2)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8시
3)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 (대구시 중구 문우관길 65)
4)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수료자 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 **교과과정**

	과 목	강 사	특 강
1학년1학기	선 요	선지 스님	1차 : 미정
			2차 : 미정

■ **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년 **1**월 **1**일 ~ **3**월 **25**일
장소 :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사무처
문의 : 053)252-3445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3)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강일자** : 2022년 3월 7일(월요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전화** : 053)980-7900 **홈페이지** : www.donghwasa.net

| 현불 논단 |

새 대통령, '불교문화' 주목해야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문화강국 일구는 20대 대통령 기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 소비
독특한 정서 담긴 콘텐츠 근간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면면히 담겨

전통문화 활성화는 지속성 토대 돼
국보 · 보물 상당수가 불교 문화유산
불합리한 규제 대신 보존 전승으로

전통문화 향한 진지한 관심 정책이
또 다른 통합의 출발점 되길 기대

제20대 대선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 진정성을 담아낸 소통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하루를 전 국민이 맞이하는 아침이다. 그 아침을 맞아 문화강국의 전통적 기반을 새롭게 일구어내자는 제언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린다.

K팝, K드라마, K푸드! 이른바 한류 콘텐츠이다. 한류 열풍은 그 자체로 국제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으로도 사용된다. 정치, 외교, 경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는 전문영역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신저이기도 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를 담아내었으면서, 세계인이 공감하고 열광하고 소비하는 대중콘텐츠, 우리는 그것을 한류라고 부른다.

그러면 한류를 만들어내는 한국 대중문화의 토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류만의 독특한 정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전통의 사유, 전통의 문화, 전통의 정서이다. 그것이 한류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류콘텐츠의 지속적 재생산 여부는 우리 전통문화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원형의 고유한 전통 콘텐츠 곧 K문화콘텐츠가 활성화될 때, 한류콘텐츠 역시 다양화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듭날 것이다. 불교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K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이 불교 문화유산이고,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불교와 사찰 살림살이 속에 살아서 전승된다. 문화유산 그 자체의 가치도 측량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담아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서의 가치는 더욱 크다. 한국의 불교콘텐츠가 가진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불교인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지원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보물이 한국불교가 보존하고 있는 전통문화이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지원 역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원형의 K콘텐츠, 그 핵심이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 불교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불교문화유산은, 전통사찰과 사찰림들은 활용되고 장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규제 속에 오히려 폄훼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것이 한국 전통문화가 처한 국가적 현실이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와 당선자에 의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불교, 불교문화를 장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첨단기술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인문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근간이 바로 한국 불교의 콘텐츠들이기 때문이다. 보존을 위한 지원,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떠나서 대중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저버리고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한류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난의 고비마다, 한국불교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었다. 그 소통과 통합의 노력을 담아낸 결실이 바로 불교의 전통문화들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 중흥의 주역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안에 이 땅의 시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던 화쟁(和諍), 일심(一心)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통, 화합, 통합의 아이콘인 전통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또 다른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

3월 섬에 바람이 붑니다.

귀덕에서 한림항까지 걷다 보면 섬에서 섬이 보이는 한수리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한수리에서는 저 멀리 눈 덮인 한라산이 보이고 태고의 탄생 비밀을 간직한 신비의 섬 비양도가 보입니다. 그곳에 제주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이 할망이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보름 동안 섬 바다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간다고 생각하며, 제주도민들은 영등제를 지냅니다.

어느 옛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으로 표류하여 어떤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외눈박이 거인들과 마음이 어질고 착한 몸집이 큰 영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서 놀던 영등은 이들을 구하려고 배를 바위굴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마에 커다란 눈 하나가 달린 외눈박이들이 들이닥쳐 따져 물었지만, 영등은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외눈박이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진한 영등의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영등은 어부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관음보살을 외우거라. 그러면 잔잔한 바람이 불어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등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관음보살을 외우며 고향 앞바다에 다다랐습니다. 고향 포구를 본 사람들은 반가움에 관음보살 외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닻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는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나 거인의 섬으로 표류하였습니다.

이를 본 영등은 다시 배를 인도하여 자신의 바위굴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빌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영등은 외눈박이들이 곧 들이닥칠 터인즉 절대로 배에서 내릴 때까지 관음보살 외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나라고 재촉하며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떠나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천상으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바쁜 세시 중 2월 초하루에서 보름 동안 시간을 내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제를 지내도록 하라."

어부들은 꼭 그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관음보살을 외며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한편, 뒤쫓아 온 외눈박이들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영등은 모른다고 했으나, 외눈박이들은 개들을 데려와 냄새를 맡게 하여 거짓말하는 영등을 세 토막을 내어 죽입니다. 도민들은 영등이 비록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 제주 바다를 지키며 바다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등은 할망으로 숭앙받으며 선주나 어부들에겐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람은 고통과 행복의 바다를 가져다줍니다. 외눈박이의 편견으로 보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비의 행을 통해서 관음보살님께 다가가면 열반의 고향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의 순풍처럼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해를 건너 피안으로 인도됩니다. 본고향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풍요롭게 수놓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군승' 파송 종단 대응 시급하다

'승려'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진행된, 2009년 종헌 9조 2항 군승법사 독신 예외 조항 삭제 이후 군승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출가자 감소로 의무할당제 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군승' 뿐만 아니라 '군법사'의 파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 파송 수급난을 호소했다. 2021년 미달 사태 이후 2년째로, 이번에는 정원 18명 중 8명 밖에 채우지 못했다. 체력검정 등을 거치면 파송인원이 줄기에 사실상 1/3토막난 상태다.

군승 파송 미달 사태의 주요 원인은 '출가자 감소'다.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파송할 '군승'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체 파송인원을 독신비구로 규정한 이후 대부분 군법사로 활동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사라지고, 군승요원 중심 충원만 이뤄진 결과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립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사실 군승 정체성 강화는 군종장교로 활동하며 스님들이 환속하는 등 승려 정체성이 하락한 것이 명분이 됐다. 이러한 당위성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군종사관후보생 독신 예외 부여 목소리가 높다. 승려 정체성의 문제는 군승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방안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군승 파송이 지속적으로 미달된다면 군포교 현장에서의 역량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군포교는 미래포교의 터전이다. 현실적인 군승 파송문제에 대한 종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불자 온정으로 산불 재난 극복을

전례 없는 겨울철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 동해시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 산림 피해면적이 2만4158ha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불 사태로 주택 358채를 포함해 공장 · 창고는 167곳, 종교시설은 75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 동해안의 산불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집이 전소돼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만 1000여 명이 넘는다. 완전 진화가 늦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산불 발생 직후 현장에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대처는 시의적절했다.

조계종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협력해 성금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성금을 기탁했고, 전국 교구본사 및 사찰들이 잇따라 구호기금 모연에 동참, 아름다운동행과 각 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와 지구촌공생회도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현장 상황실에 직접 방문, 산불 진압에 힘쓴 방재단 및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불교계의 성금모금에 담긴 온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은 재난피해를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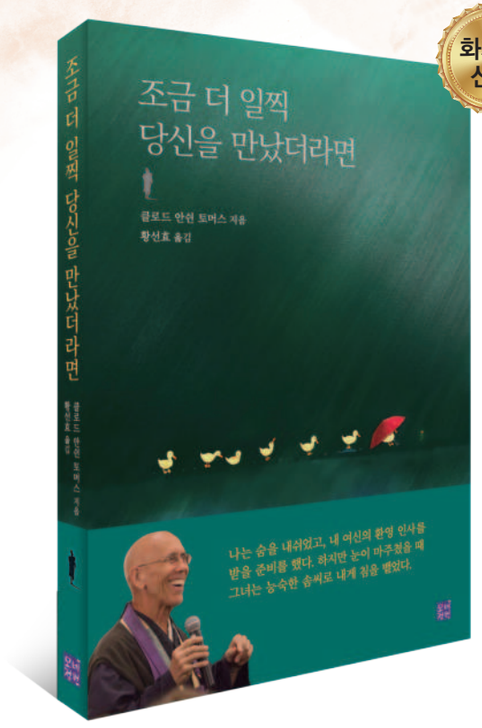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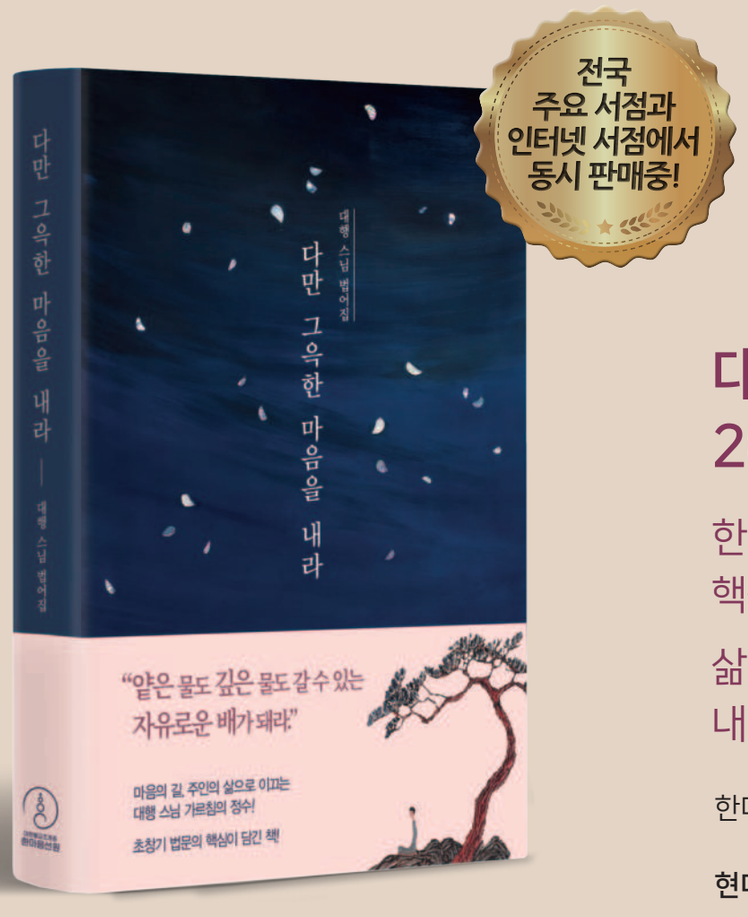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